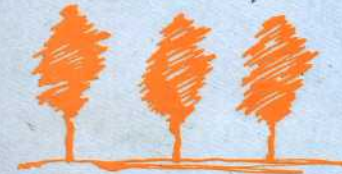


인권정보자료실

R1.1.6

# 인권하루소식

합본 VI 호  
(501호 ~ 674호)



1996. 9.

인권운동사랑방

인권하루소식

합본 VI 호 (501호 ~ 674호)

인권정보자료실

R1.1.6

인권운동사랑방



# 차례

일러두기	합본 6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	/2
시론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장호순(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)		/3
머리 글	96년 상반기 인권상황 개괄 · 인권운동사랑방	/40
제52차 유엔인권위 총괄 보고서		/57
부 록	<인권하루소식> 합본 6호 색인	/487

## 제501호(95.10.11, 수) /81

- 1면 · 민변 검찰 4.18위중 불기소 결정 반박, 국회위중죄 국회고발없어도 기소 가능  
 · 쇠파이프 구속학생 구속적부심서 석방  
 ·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
 · 방위비 삭감 운동전개, 국회의원에 엮서 보내기
- 2,3,4면 <인권하루소식> 5백호 발간 기념 좌담-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

## 제502호(95.10.12, 목) /85

- 1면 ·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 · 규탄, 학살 면죄부 현정권에도 책임  
 · 박창희교수 "전형적 간첩" 검찰 무기징역 구형  
 · 언론계 6천4백여명, 5.18특별법제정 선언
- 2,3,4면 <인권하루소식> 5백호 발간기념 좌담-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

## 제503호(95.10.13, 금) /89

- 1면 ·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,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 
 · 전국 백여 곳에서 5.18서명운동전개  
 · 민변,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  
 · 충무로 폭행미군 첫 공판
- 2면 <함께걸음 통합교육 한마당 스케치>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

## 제504호(95.10.14, 토) /91

- 1면 · 서울등 전국 5곳 대규모 국민대회,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다짐  
 · 김종태열사 묘지 망월동이장

- 전국연합, 노씨사과 학살책임 인정요구
  - 이부영 의원 5년구형, 국보법 집시법등 결심
- 2면 ·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결과 발표,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하다

## 제505호(95.10.17, 화) /93

- 1면 · 민변 5.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, 변호사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
 · 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, 학살자 처벌 정권퇴진 주장  
 · 천정연, 명동성당서 시국기도회 촛불시위
- 2면 ·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, 수배자 오인 자총련 김승호씨 연행  
 · 민교협 · 사교련, 비리사학 경영주체 바뀌야

## 제506호(95.10.18, 수) /95

- 1면 · 여성단체 5.18 헌법소원 · 민자당사 시위, 의사2천3백여명 특별법 제정 촉구선언  
 · 전국연합, 김대통령 입장 반박, 국보법 철폐 주장
- 2면 · <자료> 5.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의견서(요약)  
 · 대전고법,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
 · 김승호씨 5시간만에 풀려나, 동대문서 수배자로 오인

## 제507호(95.10.19, 목) /97

- 1면 ·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열려, 세계적인 전문가 한자리에  
 ·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, 구금장소 안 밝혀져  
 · 민주노총(준), 경찰청 수배자 검거령 강력 비난
- 2면 · <특별강의> 동양사상과 인권(신영복) ①-인권의 문제는 억압으로부터 출발한다  
 ·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, 고용 안정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

## 제508호(95.10.20, 금) /99

- 1면 · 5세아연대회의,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 국민학교 빈자리 채우기 일뿐  
 · 포천주민대표, 군수면담중 연행돼  
 ·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, 더그망언 항의성명  
 · 충남대 자주대오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
- 2면 · <특별강의> 동양사상과 인권(신영복) ②-자유의 최고치는 평등

## 제509호(95.10.21, 토) /101

- 1면 · 고용평등추진본부 발족 현장모니터 고발센터 운영, 시민단체 고용불평등 감시 나서  
 · 박창희교수 징역 7년 선고, 학문 목적 접촉은 무죄
- 2면 · 박용길장로 일시 석방,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 
 · 위안부민간기금 모집활용 일본 자치노 홍보물 수거  
 · 5.18 4천억 수사촉구

· 이한열 열사 부친 운명

**제510호(95.10.24, 화) /103**

- 1면 · 충남대 자주대오사건 구속자가족 조작 주장, "경기대 자술서 빼겨 쓰라고 강요당해"
- 민교협,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성명
- 각계원로 헌법 재판소에 5.18 의견서 제출
- 불교인권위 인권학교,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려
- 2면 ·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, 5·6공 비자금 5.18특별법 제정촉구
- 시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, 프락치 판명 김주광씨 나타나

**제511호(95.10.25, 수) /105**

- 1면 ·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, 조작간첩 고통스런 삶 영상으로 증인
- 문국진씨 항소심, 피고측 증인 "모른다" 일관
- 성폭력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1주년,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등 이용
- 2면 · 민주노총(준),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
-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-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
- 전국연합, 노태우씨 항의방문
- 참여연대 전 검찰총장등 직무유기로 고발,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
- 장애인복지공단위 정책결정에 참여보장, 장애인 2% 공천 요구

**제512호(95.10.26, 목) /107**

- 1면 · 민주노총(준) 공청회, 근로자파견제 '현대판 노예노동' 합법화
-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요구, 29일 한마당 행사도
- 박용길장로 재판 무기연기
- 2면 · <손종규씨 손배소송 자료>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

**제513호(95.10.27, 금) /109**

- 1면 · 범국민비대위 결성, 5.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결의
- 철거폭력 또 발생, 무악동 주민 30명 부상
- 2면 ·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촉구
- 한통노조 무기한 단식, 회사 농성장 폭력침탈
-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

**제514호(95.10.28, 토) /111**

- 1면 · '국민우렁'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,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
- <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> 노씨 전재산 몰수,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
- 2면 · 충무로 미군난동사건 피해자 조정국씨, 애국시민상 수상
- 하이텔에 올라온 '간첩의혹' 발언, "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"

- 봉천동 성폭력피해자 전철순씨, 집행유예 선고
- 시민권리헌장 선포,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

**제515호(95.10.31, 화) /113**

- 1면 · 실명제 개정 청원,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
- 북한, 비전향 장기수 복송 논의 판문점 회담 환영
- 2면 · 10월 총목차(496-515호)

**제516호(95.11.1, 수) /119**

- 1면 · 민가협,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는 집시법 위반, 내무부장관·경찰청장 고소
- 여성단체, 고용평등법 개정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민자당사 항의집회
- 한국교회협의회 5.18특별법제정촉구 특별기도
- 2면 · 교육단체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
- 전국연합, 서대문경찰서장등 불법감금 혐의 고소

**제517호(95.11.2, 목) /121**

- 1면 · 5.18비대위,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.18특별법 노태우씨 구속촉구
- 전국연합, 철야농성 돌입 매주 대규모 집회 계획
- 민주노총 비상결의대회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촉구
- 노운협 의장등 긴급구속, 홍제동 대공분실 조사
- 2·3면 · <지상중계>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(1)-적색공포 조장,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
- <인권하루소식>의 긴급제안-노씨 전재산 몰수,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

**제518호(95.11.3, 금) /125**

- 1면 · 법무부 19명 사형집행,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
- 민자당, 파견법 유보발표 민노총 전면철회 요구
- 인천연합, 부평경찰서 집회불허로 고소 예정
- 참여연대, 「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」 개정 국회청원
- 2·3면 · <지상중계>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(2)-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

**제519호(95.11.4, 토) /127**

- 1면 · 이부영의원 의원직 상실, 국보법 실행 선고 상고포기
- 5.18비대위 오늘은 국민행동의 날, 전국에서 학살자 처벌 시위
- 2면 · <5.18문제와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들>-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
- 엠네스티 긴급행동, 한국정부에 19명 사형 항의
- 노운협, 3일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성명
- 경남도경, 창원대 총학생회장 국보법 위반혐의 연행

제520호(95.11.7, 화)

/129

- 1면 · 경찰 전 전대협 간부등 3명 긴급구속, "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"
  - 전대일 25주기 추모식, 이번주 영화시사회
  -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
- 2면 · <특별기고>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?-오완호

제521호(95.11.8, 수)

/131

- 1면 · 민주노총(준)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, 명동성당 농성돌입
  - 청년단체들 철야농성, 불고지죄 구속 정치공작
- 2면 · <특별기고1>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-박종석
  - 원주지역 단체들, 홍중희씨 이감 서명운동 전개
  - 영화 전대일 시사회 연기

제522호(95.11.9, 목)

/133

- 1면 ·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,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완료
  - 철거민연합, 노동탄압 연대성명 제안
- 2면 · <특별기고2>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-박종석
  - 5.18비대위 11일 전국2차 국민행동 돌입, 비자금·5.18문제 결합
  - 허인회씨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구속

제523호(95.11.10, 금)

/135

- 1면 · 북한 공작원? 정보기관의 공작?,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 인지 강력부인
  - 민가협 목요집회, 간첩말만 믿고 구속 가족증언
  - 불고지죄란
- 2면 ·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,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비난
  - 시민사회단체,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성명

제524호(95.11.11, 토)

/137

- 1면 · 오늘 민주노총 출범,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
  - 시민사회단체,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
  - 제2차 국민행동의 날, 종묘공원 집회
- 2면 ·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씨 석방, 허인회씨 구속영장
  - 김귀정씨 사망 국가배상, 대법원 원심으로 확정
  - 대우조선 정월화씨, 회사 업무과다로 자살
  - 엠네스티 한국지부, 중국인권개선 촉구성명
  - 민언협, 문화일보 직장폐쇄 철회 촉구

제525호(95.11.14, 화)

/139

- 1면 · 나이지리아 인권·환경운동가 9명 사형집행, 한국민간단체들 강력항의
  - 대법원 '조작간첩'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, 신귀영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
- 2면 · <현장 스케치>청년 전대일 영화로 부활하다

제526호(95.11.15, 수)

/141

- 1면 ·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, 천주교인권위 "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"
  - 5.18비대위, 21일부터 매일 특별법 제정 요구 국회집회
  - 청년단체, 불고지죄 구속자 석방촉구 규탄집회
  - 불교인권위, 12월10일 장기수 송환논의 제안
- 2면 · 해고자지원대책위 LG그룹 해고자 복직외면, 복직 촉구서 전달
  - 전교조,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
  - <자료>-민주노총 창립선언문
  - 계훈제씨 병원입원, 불교인권위 치료비 모금

제527호(95.11.16, 목)

/143

- 1면 · 부여간첩 접촉 혐의 구속 박충열·김태년씨, 혐의사실 강력부인
  - 학교급식 연대회의,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받아 내무부청원
  - 일본양심수후원단체들, APEC기간동안 양심수 석방 단식농성
- 2면 · <해설>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
  -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
  - 주민 스스로 의정감시를,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

제528호(95.11.17, 금)

/145

- 1면 · 허인회씨 현장 부재증거 제출,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등 제시
  - 민변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규탄성명
  - 천주교 사제 단식 돌입, 시국미사 정부 도덕성 질타
- 2면 · <자료>김동식씨 진술과 허인회씨 알리바이 비교-누가 진실을 말하는가?

제529호(95.11.18, 토)

/147

- 1면 · 안기부 생사람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목살, '간첩'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
- 2면 · 허인회씨 구속적부심 기각
  - 경기도경, 애국동맹사건 7명구속 1명수배
  -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, 늦봄 통일상 후보추천 받아
  -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

제530호(95.11.21, 화)

/149

- 1면 · 박충열·김태년씨 일주일째 잠 못자고 서서 조사받아
  -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, 노태우씨 차별대우철폐 5.18특별법 제정촉구

- 2면 · 5.18특별법 다시 불붙어, 5.18비대위 매일 집회  
· 여연·불교인권위, 북한수재동포 성금 전달  
· 외무부, 나이지리아 사형집행 유감표명  
· 경찰, 동두천 주민 폭행 미군 의례적인 조사만

**제531호(95.11.22, 수) /151**

- 1면 ·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, 박충렬씨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돼 활동  
· 엠네스티, 국보법 폐지 박충렬씨등 석방요구  
· 수배 장진성씨 구속, 진보련 13명 긴급구속  
2면 ·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,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 열려  
·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
· 5.18학살과 비자금은 한 뿌리 5.18비대위,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집회 시작  
· 대선자금 공개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

**제532호(95.11.23, 목) /153**

- 1면 ·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,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 
· 민변, 5.18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, 정경식씨 신군부 협조  
· 유가협 서울구치소 시위,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.6공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  
2면 ·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“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”지적  
· 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여성단체 다양한 행사마련  
· 전국연합등 안기부 시위, 고문조작 중단 촉구  
·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,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

**제533호(95.11.24, 금) /155**

- 1면 · 권영길 민주노총 의장 불잡혀, 민노총 방배경찰서 앞 석방요구 농성  
· 종교 4단체, 5.18 특별법제정 대선자금 공개촉구  
·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, 5.18특별법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 
2·3면 · <해방·분단 50주년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> 탄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, 인권  
· 민가협 목요집회, 로스 다니엘씨등 3명 0.75평 감옥체험

**제534호(95.11.25, 토) /158**

- 1면 · 민자당, 5.18특별법 만들기로, 각계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 
2면 · 국보법 개정 강력 촉구 AI 보고서 발표, 다니엘스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요구  
·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,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 
· 안기부 박충렬씨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, 민가협등 항의시위  
· 전남도경 영장재발부, 진보련 6명 구속  
· 일본 한국정치범단체들, 양심수 석방 호소

**제535호(95.11.28, 화) /160**

- 1면 · 특검제 도입없는 5.18특별법 무의미, 전국연합 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 
· 5.18비대위, 특검제 도입 검찰사과 강력촉구  
· 박영생씨 재판 증인진술, 공무방해 성립어려워  
· 가락본동 철거민 쌍용본사 항의방문  
2면 · 안기부 김태년씨 무전기 발견못해, 12일째 물증없이 자백만 강요  
· 불교인권위, 계훈제씨 병원비 1천1백여만원 전달

**제536호(95.11.29, 수) /162**

- 1면 ·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, 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촉구  
·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, 공정한 심판 기대어려워  
· 민예총 5.18특별법 성명, 전두환씨 반성하라  
· 여성장애인들 모임, 스스로 빛장 열기다짐  
2·3면 · <자료>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-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, 공포, 국가안보  
· <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> -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공유

**제537호(95.11.30, 목) /165**

- 1면 · 이덕인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, 경찰 강제부검 후 ‘사인-익사’로 밝혀  
· 안기부·경찰,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29명 긴급구속  
2면 · 5.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, 헌재 5.18선고 무산  
· <5.18특별법 제정 공청회>-누적된 과거역사 청산위해 특검제 도입의견 일치  
3면 · <자료>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-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 
· 범민련연행자 명단

**제538호(95.12.1, 금) /171**

- 1면 · 전국연합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, ‘간첩’사건 조작의혹 나서  
· 민주노총 강경투쟁 결의,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
· 박용길 장로, 집행유예  
2면 · 11월분 목차(516-537호)

**제539호(95.12.2, 토) /174**

- 1면 ·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, 유엔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
2면 ·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,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
· 검찰 5.18 재수사 안돼 5.18비대위등 비난 성명  
· 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, 노운협·KSCF성명  
·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  
· 안기부 박충렬씨 변호인 접견 불허  
3면 · <자료> 「AI」 보고서, 국보법 개정·변호인접견권 보장·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

제540호(95.12.5, 화)

/176

- 1면 · “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” 박충렬씨 변호인에 밝혀, 김태년씨 접견 거부당해
  - 범민련 강희남씨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
  - 5.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
- 2면 ·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,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.5%
  - 주간인권호름

제541호(95.12.6, 수)

/179

- 1면 · 국회 · 5.18비대위 · 5.18비대위 5.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
  -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, 범민련 구속 전창일씨 준항고장 제출
- 2면 ·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방문
  - 안기부, 박충렬씨 의사검진 거부
  - 이인영씨 구속정지 허인회씨 8일째 단식
  - 수녀 1천6백여명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평화행진, 일본 대사관에 편지 전달
  - 이덕인씨 사인규명 촉구, 사건일지정리
- 3면 · <자료>5.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- 5.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등을 위한 특별법(안)
  - <자료>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

제542호(95.12.7, 목)

/182

- 1면 ·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,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
  -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,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
- 2면 · <인터뷰>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씨를 만나
  -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,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
  - 5.18비대위 특검제 도입, 국회 앞 촉구 집회 가져

제543호(95.12.8, 금)

/184

- 1면 · 검찰송치 박충렬씨 변호사 접견 거부 당해 변호인단,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
  -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,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
- 2면 · 국제인권소식-SOS Torture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,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
  -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
- 3면 · <자료>국보법 국제심포지엄: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:국가안보와 인간안보4

제544호(95.12.9, 토)

/187

- 1면 · 안기부 ‘간첩’관련 제야 30여명 수사 방침, 민가협 “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” 반박
  -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
  - 5.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
- 2면 ·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보호선언-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
  - <특별기고> 고문 · 폭력수사 이제 그만(남향숙)

제545호(95.12.12, 화)

/189

- 1면 · 호주노조들 권영길위원장 구속 항의집회, 각 노조들 김 대통령등에 계속 항의편지
  -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
  - 전국연합, 최규하씨 증언 촉구 검찰 최선 다해야
  - 참여연대 법률상담 시작
- 2면 · 노점상 이덕인씨 타살? 비상대책위 의문제기
  - <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>
- 3면 · <인권하루소식> 통신 서비스 시작,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, 자료목록까지

제546호(95.12.13, 수)

/192

- 1면 · 5.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,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.18특별법 7대원칙 천명
  - 법원, 불법수사관행 폐기 “영장제시 않으면 불법”
- 2면 · 여연, “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”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
  - 5.18비대위 등 12.12. 16주년 성명 발표, 5.18진상규명 · 5.6공 잔재청산 · 민주개혁 촉구
  - 새정치국민회의 고이덕인씨 사인조사
  - 청년단체, 전두환씨 단식 국민우롱 안양교도소 시위
  - 장기수 복송회담 제안, 불교인권위 내년 1월

제547호(95.12.14, 목)

/194

- 1면 · 임신8개월 고에순씨 구속적부심 기각
- 2면 · <자료>노태훈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-영장없는 연행, 압수수색은 불법
  - 5.18광주공대위, 최규하씨 5.18등 증언 촉구
  -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, 여연 영창악기 검찰 결정 불복 항고

제548호(95.12.15, 금)

/196

- 1면 ·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, 민변 5.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
  - 대검찰청,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
  - 이덕인 대책위, “민중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” 제안
- 2면 · 국제인권소식-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자행,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
  - 민노총 설명회 가져

제549호(95.12.16, 토)

/198

- 1면 · 법원 “영장 유치장소 무시, 안기부 수사불법”,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
  -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, 조수원씨 4년6개월 수배 끝에
- 2면 · 귀향모임, 중국교포 산재보상 · 체불임금 신청 노에취급 항의하면 구타
  - 유가협,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 · 최규하씨 집 앞서

**제550호(95.12.19, 화)**

/200

- 1면 ·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“병역악법 개정하라”, 고 조수원씨 사망 이후 해고자문제 전면부상
  - 아시아연극인 페스티벌 6개국 참가 열흘간 열려
  - 김태년씨 석방 탄원운동
- 2면 ·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글-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

**제551호(95.12.20, 수)**

/202

- 1면 ·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, 민교협등 시민단체, 과거청산 방법 토론
  -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
- 2면 · 아동학대예방협회,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, 아동학대방지법 필요
  - 박종철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밝혀
  - 5.18특검제 배제에 우려, 5.18비대위등 특별법 성명
  - 조각간첩대책위, 소식지 배포중

**제552호(95.12.21, 목)**

/204

- 1면 · 허인회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, 불고지리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
  - 민주노총, 정부 제소 ILO 87호 조약 위반
- 2면 · 민주노총,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, 조수원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
  -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10대 뉴스/범민련사건 이천재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

**제553호(95.12.22, 금)**

/206

- 1면 · 대법원 “무노동 무임금” 판결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, 민주노총 수용거부
- 2면 · 서울지법, 충무로지하철 폭행사건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
  - 농성자 12명 경찰 연행, 명동성당 농성 무기연기
  - 5.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

**제554호(95.12.23, 토)**

/208

- 1면 · 노동법 개정없이 OECD 가입 불가능,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
  - 조수원씨 추모대회 예정 23일 서울역 광장에서
  - 무노동 무임금 철폐촉구, 전국연합등 대법 판결 비난
- 2면 ·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
  - 양심수 특사제의 비난, 천주교인권위 논평
  - 추운겨울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다

**제555호(95.12.27, 수)**

/210

- 1면 ·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,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
  -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,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
- 2면 ·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, 5.18공대위 5·6공 청산작업도 병행

- 우성호 선원 귀환 환영, 재야 남북대화 재개 기대
- 3·4·5면 · <인권하루소식>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

**제556호(96.1.5, 금)**

/217

- 1면 ·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, 조수원씨 서울·부산에서 노동자장으로
  -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, 동두천 이영직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
  -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
- 2면 · 95년 12월 총목차(538-555호)

**제557호(96.1.6, 토)**

/220

- 1면 · 경찰 조수원씨 장례행사 원천봉쇄, 추모 노제없이 대우정밀에서 영결식
  - 고 조수원씨 죽음에서 장례까지
  - 서울지법, 경찰 불법 주거 침입 배상하라 판결
  - 청와대 항의방문 가던 노점상 1백여명 연행
- 2면 · <자료>박종철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
  -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

**제558호(96.1.9, 화)**

/222

- 1면 · 검찰 박종철·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,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
  -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, 다시 타살 의혹 제기
  -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
- 2면 · <자료>박종철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-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

**제559호(96.1.10, 수)**

/224

- 1면 · 외국인사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,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
  - 불교인권위원회 박석률씨 성금 전달
  - 강원도경 9명 긴급구속, 중부지역당 재건 혐의
  - 참여연대 부패추방운동 본부 발족, 2천년까지 전개
- 2면 · <해설>박종철·김태년씨 고무찬양등 혐의 기소 의미-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
  - <현장스케치> 1백75일만에 끝낸 5.18 명동성당농성

**제560호(96.1.11, 목)**

/226

- 1면 ·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약속 받아내
  -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자들 혐의 부인
  - ‘간첩’ 김동식 법정증언
- 2면 · <독자투고> 전창일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
  - 범민련 구속자에게 엽서를

제561호(96.1.12, 금)

/228

- 1면 ·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, 몰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 
·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, 검찰 공소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 
·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빛은 인권침해, 미결 재소자 혼잡 옷으로 겨울지내
- 2면 · <박충렬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>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...

제562호(96.1.13, 토)

/230

- 1면 ·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, 경찰에 의한 타살가능성 주장  
·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, 미국측 수행시설 낙후등 문제 들고 나와
- 2면 · 5.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?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대토론회 열려  
· 성동구치소장 10개 요구사항 개선 약속

제563호(96.1.16, 화)

/232

- 1면 ·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김시자씨 분신·사망, "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" 주장  
· 분신·사망한 김시자씨 유언  
· 4인 가구 표준생계비 2백35만9천9백30원, 민주노총 조사·발표
- 2면 · <자료>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-현정부의 '역사 바로 세우기' 비판

제564호(96.1.17, 수)

/234

- 1면 · 이덕인씨 사망 49일 추모집회
- 2면 ·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씨 농성풀어,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
·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 
· 분신 김시자씨 한전본부 노사 방해로 장례 어려움  
· 엠네스티 영국지부, 홍성담씨 판화 담긴 고문책자 발간 예정

제565호(96.1.18, 목)

/236

- 1면 · 고교입시 성차별, 평등권에 위배, 고입점수 높은 이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
· 원진레이온 실직 노동자 공사장서 화상입고 사망
- 2면 ·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, 주거권 확보 위한 공동실천지침 마련  
· <자료>민주노총 발표 표준생계비  
· 이덕인씨 비디오 제작

제566호(96.1.19, 금)

/238

- 1면 · 유엔인권위 의사·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, 국보법 철폐 권고  
· 노동부,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
·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돼
- 2면 ·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, 장애우연구소 전국 18개 대학조사에서 밝혀  
· 고난모임, 장기수 자녀에 장학금 전달

제567호(96.1.20, 토)

/240

- 1면 ·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, 분신대책위원장·유가족등 연행  
· 전국연합·불교인권위 성명,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 
· 고입 선발피해 여학생 학부모, 강력 대응키로
- 2면 · 녹색교통운동,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,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 
· 전국연합 광주전남공대위 5.6공 청산 집회, 5.18 특별법 위헌 제청 비난

제568호(96.1.23, 화)

/242

- 1면 · 유엔 어린이권리조약 정부 최초보고서 심의,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 
· 이덕인책위 답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
- 2면 ·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씨 유가족이 화장,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 결성  
· 불교인권위 범민련 구속 목사돕기 모금운동

제569호(96.1.24, 수)

/244

- 1면 ·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, "법률 아닌 '국방경비법'으로 불법구금"  
· 민주노총,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
· 전국연합·민변 성명, 검찰 5.18수사결과 비난
- 2면 · <자료>유현석변호사의 「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」에서-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
· 고 김시자위원장 분신 원인-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

제570호(96.1.25, 목)

/246

- 1면 · 5.18 공대위 토론회 "5.6공 완전 청산 활동" 한입장, 5.18학살자 진원처벌 감시단 설치제안  
· 5.18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내용
- 2면 · <현장스케치>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-4년 시위 정신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  
· 전국연합, 29일부터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  
·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, 특별법제정 부패척결  
· 민주노총,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

제571호(96.1.26, 금)

/248

- 1면 · 대법원,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 
· 아암도 노점상 식발 단식농성 5일째, 25일 뇌성마비 장애인 병원 긴급후송  
· 참여연대, 전·노씨 재판부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의견서 제출
- 2면 · <자료>통계청 발표 95년 한국의 사회지표-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

제572호(96.1.27, 토)

/250

- 1면 · 허인회씨 2차공판 부여간첩 김동식,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주요질문에 "기억 안 난다"
- 2면 ·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 거부, "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"



·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,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

**제573호(96.1.30, 화) /252**

- 1면 · 김시자씨 추모집회 노조 민주화 다짐, 노민추 한진노조 집행부 퇴진·구속자 석방 요구
- 전국연합·불교인권위 성명,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
- 전국연합, 1억 목표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
- 법학교수 72명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
- 2면 · <자료> 북한수재동포돕기 성명서-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

**제574호(96.1.31, 수) /254**

- 1면 ·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남용말라, 법학교수 72명 의견서 발표
-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, 박종철씨 1차 공판서 조성욱 검사
- "사법부 감정적인 판결",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

**제575호(96.2.1, 목) /259**

- 1면 ·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, 유엔 아동권위원회, 어린이·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
- 장기수 복송 회담 불허,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
- 2면 · <자료> 법학교수들의 의견(요약)-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
- 전국연합, 대북지원 팔건고 나서야한다고 정부 촉구
- 불교계, 군교회 예배사건으로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

**제576호(96.2.2, 금) /261**

- 1면 · 또 "제3차 개입", 양규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행
- 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하고 농성은 계속
- 전 연세춘추 편집장 수술 대기중 구속
- 김태년씨 재판 연기
- 2면 · <자료>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 결론적 의견

**제577호(96.2.3, 토) /263**

- 1면 · 의노협 기자회견,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불법체류의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있다
- 민민학련 군복무자 5명 기무사 구속 확인
- 2면 · <독자투고>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

**제578호(96.2.6, 화) /265**

- 1면 · 경찰·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, 주민폭행 용인 강제철거 철담서 화재, 1명 사망·4명 중상
- 경찰,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
- 전국연합, 공안탄압 중지 촉구
- 2면 · <자료> 마카오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-수재민 5백20만명, 피해액 150억 달러

**제579호(96.2.7, 수) /267**

- 1면 ·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,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
- 전국연합, 폭력강제철거 중단하고 책임자 엄벌 촉구
- 서울고법,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
- 바른언론,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공개 촉구
- 2면 · <현장스케치-고 신연숙씨의 영안실 표정>
-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담 농성 1백38일
- 경찰,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만나게 해

**제580호(96.2.8, 목) /269**

- 1면 · 정대협,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-유엔 보고서 제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
- 전국연합, 정부 북한 돕기에 나서야한다는 서한 전달
- 2면 · <자료>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
- 재야대표·엠네스티,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서한 정부에 전달
- 여연, 한진 노사에 노조위원장 사퇴 등 촉구 항의서한
- 불교인권위, 19일 판문점서 장기수 복송 회담 재추진

**제581호(96.2.9, 금) /271**

- 1면 ·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
- 고애순씨의 육아일기
- '꽃다지' 대표 구속에 항의해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
- 2면 ·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, 한국노총 반성·개혁돼야
- 민주노총 구속자 35명, 수배자 13명등 사면대상 파악발표
-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

**제582호(96.2.10, 토) /273**

- 1면 · 정부, 국제무대에서 '사기극', '어린이·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' 결성 안돼
- 고애순씨 50여일 수감 중에 단 한차례 진료
- 서울시경, 사노맹 구속자에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
- 2면 ·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, 3차공판 "불법파업 선동한 죄 없다"
- 허인희씨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
- 여연, 15일까지 여성운동상 후보 추천
-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엠네스티 석방 촉구

**제583호(96.2.13, 화) /275**

- 1면 · 검경,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, 대책위 토개공·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·고발키로
- 9일 암사동에서 강제철거

-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
- 2면 · 고에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, 여연·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
- 사노맹사건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준항고 결정
-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, 예술활동 탄압중지 촉구

**제584호(96.2.14, 수)**

/277

- 1면 · '강제철거 중지' 공약실천 촉구, 철거민들 경기도지사·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키로
- 2면 · <자료>고에순씨 옥중 편지-자나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
-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
- 녹색교통, 대기오염 측정 시민 모니터 지도 제작
- 안기부의 간첩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회

**제585호(96.2.15, 목)**

/279

- 1면 · 모성보호등 여성 채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,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에순씨 대책위구성
- 사회각계대표 1백명 "간첩조작 중단"등 촉구
- 2면 · <특집> 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채소자 수감 실태(1)
- 불교인권위 성명,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
- 대통령에 석방 탄원,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
- 간암투병 유구영씨 후원의 밤

**제586호(96.2.16, 금)**

/281

- 1면 ·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, 군산·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전 촉구
- 2면 · <특집>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채소자 수감 실태(2)
- 전국연합, 북한 수해동포 캠페인
- 세계주거회의 참가신청

**제587호(96.2.22, 목)**

/283

- 1면 · 우산시 한국티타늄 공장 증설허가 물의, 환경단체등 공해공장 허가 철회 등 강경대응 모색
- 고 신연숙 비대위 민중탄압 공동항의 제안
- 2면 · 생명나눔실천회,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한다
- 성폭력 상담원 모집
-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
- 주간인권호름(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)

**제588호(96.2.23, 금)**

/285

- 1면 · 유엔,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,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
-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,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
- 2면 · 127회 민가협 목요일집회 열려 "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"

· 꽃다지, '석방되는 그날까지' 거리공연 계속

**제589호(96.2.24, 토)**

/287

- 1면 · 산재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, 현대중공업 이들에 1건 꼴로 중대 재해 발생
- 고 신연숙씨 비대위 결의대회 가져
- 2면 · '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, 민노총·민교협 등 8개 단체
-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,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
- 고에순씨대책위,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

**제590호(96.2.27, 화)**

/289

- 1면 · "5.6공 완전청산·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"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 시위
-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,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
- 문호근씨 '김정일 선물'기사에 언론중재 신청
- 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, 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
- 2면 · 호봉체계 성차별,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,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

**제591호(96.2.28, 수)**

/291

- 1면 · 참여연대,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, "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"
- 서울시경,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
-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
- 제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
- 2면 · <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>- "마르코스계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"고 판결
- <자료>김선명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

**제592호(96.2.29, 목)**

/293

- 1면 · 광주학살 '미국개입설' 모두 사실, 재야단체들 미국의 사과등 강력 촉구
- 전국연합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
- 2면 · 일본 동경도 정량균씨 승진차별에 서명운동 전개-외국국적 소유자 승진차별 끝까지 싸워
-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-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

**제593호(96.3.2, 토)**

/297

- 1면 · 성폭력상담소, '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'판결에 대해 특별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대법원 비난
- 인천 남부경찰서, 고이덕인씨 유가족 2명 불구속 입건
- 2면 · 96년 2월 하루소식 총목차(585-592호)

**제594호(96.3.5, 화)**

/300

- 1면 · 경원대측 무조건 장례요구하며 학생징계 강행, 고장현구대책위는 "고발교수 사과부터"
- 참여연대, 부정부패 신고전화 '시민의 눈' 개통

- 2면 ·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 예정
- 전국연합등 사회운동단체,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·1절 기념식

**제595호(96.3.6, 수) /302**

- 1면 · 여연,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일본인 변호사 도즈카씨 선정
- 2면 · 고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백일,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
- 술벤트 중독 피해자들 중독 대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

**제596호(96.3.7, 목) /304**

- 1면 · AI, 각 정당·정치단체에 총선에 '인권 공약' 포함 촉구하는 공개 서한 보내
- 서울지법, 국보법 19조 위헌제청,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현재 판단에
- 진보정치연합, AI 인권공약 채택 요구 적극 홍보
- 2면 ·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
-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
- 고장현구군 문제해결 촉구, 인권협 성명발표
- 고이덕인 1백일 추모집회

**제597호(96.3.8, 금) /306**

- 1면 · 전두환 전직대통령의 병원치료비 국고로 부담해
- 제12회 3·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
- 2면 · <인터뷰>여성운동상 수상-도즈카 변호사
- AI 한국지부, '북경여성대회 결의사항 이행' 촉구

**제598호(96.3.9, 토) /308**

- 1면 ·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,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
-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, 범민련 전창일씨등 3명 첫공판 열려
- 박충렬씨 3차공판서 검찰, 연방제 주장은 북한의 사주라고 주장
- 2면 · "모두에게 적정주거를"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의 개최
- 청년정보문화센터 회원, 선거법 위반 빌미로 불법수사

**제599호(96.3.12, 화) /310**

- 1면 · 전두환·노태우 2차 공판서 강민조씨 전씨 가족들에게 폭행 당해
-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, 헌법소원심판 청구
- 2면 · 중국으로부터 자유·독립 선포한 3월10일 제38주년 티베트의 날

**제600호(96.3.13, 수) /312**

- 1면 · 국제자유노련 조사단,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-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
- 경찰 한밤중 경원대 난입해 전총학생회장 연행/강민조씨, 전재국씨등 고소

- 2면 · AI의 공약 촉구서한에 대해 여야 정당들 대부분 "모른다"
- 여연, '가정폭력방지법 제정'등 10대 여성정책 발표,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

**제601호(96.3.14, 목) /314**

- 1면 · "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"-민주금속연맹, 13·14일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
- 박시환판사 권영길위원장 보석 결정
-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, 노태우씨 재산환수 촉구
- 2면 · <자료>12·12, 5·18사건 재판에 대한 5·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규탄성명
- 강희남씨등 9명의 범민련 1차 재판, "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"며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

**제602호(96.3.15, 금) /316**

- 1면 · 여성의 전화,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
- 2면 ·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, 미국 실체 드러났다며 미대사관에 한미행협 제정요구 서한 전달
- 5.18 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, 민주법학 10호 발간

**제603호(96.3.16, 토) /318**

- 1면 · 허인희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 3사람 "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"고 말해
- 유가협등 전씨 세아들 폭력혐의로 고발
- 사노맹 관련해 임산부 또 연행
- 2면 · <토론회>김영삼정권 3년 여성정책 평가
- 한국통신등 공공기관 해고노동자, 김정권 3년동안 162명 해고, 명동성당 농성

**제604호(96.3.19, 화) /320**

- 1면 ·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한국인 박무영씨 홍콩 경찰서에 기소
- AI 한국지부,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캠페인
- 2면 · <현장 스케치-MBC 파업 6일째> 언론이 정권 시너 되어서는 안돼
- 성남미래 대표 김태년씨 보석 석방
-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'사람이 그리운 사람들'이라는 주제로 사진전 개최

**제605호(96.3.20, 수) /322**

- 1면 ·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며,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
- 2면 ·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정
- 민주노총, 노동법 개정·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키로
- 참여연대, 총선후보 대상에게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
- 과거 활동 문제 삼아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

**제606호(96.3.21, 목) /324**

- 1면 · 한국통신등 공공노조, 무기한 농성 정보통신부·신한국당 항의방문

- 양규현씨 재판연기
- <자료>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
- 2면 · 고 장현구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-“5년동안 징계·고발·구속 그리고 계속된 투쟁”

**제607호(96.3.22, 금) /326**

- 1면 · “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”,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씨 7월 재판 재개
  - 참여연대등 8개 시민단체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제안
- 2면 · <현장스케치>장에인사진전 ‘사람 그리운 사람들’
  - 공공부문 노동자 구속에 항의해 공노대 신한국당사 항의방문

**제608호(96.3.23, 토) /328**

- 1면 · 민가협,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이라고 발표
  -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, 한미행협 개정 요구하며 외무부앞 시위
- 2면 · “중대재해예방 작업중지권 행사로!” 삼호조선소 노동자 5명 사망, 3명 중상
  -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?, 범민련 관련 2차공판
  - 김태년씨 재판 연기

**제609호(96.3.26, 화) /330**

- 1면 · 박충렬씨 결심재판서 검찰 ‘간첩조작’실패에 악의지 구형
  -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필리핀서 28일 개막
  - 23일 꽃다지 대표 이은진·원용호씨 보석으로 석방
  -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

**제610호(96.3.27, 수) /332**

- 1면 · 전국연합,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하며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일집회 개최키로
  - 92년 남총련 의장 불잡혀
  - 권영길씨 5차공판 증인신문서 근로감독관 “노동법 잘 모른다”
  - 불교인권위, 4월19일 장기수 송환 회담 재추진
- 2면 · 인권운동사랑방등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요청하는 항의서한 발송
  - <자료>홍콩 정부,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

**제611호(96.3.28, 목) /334**

- 1면 ·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재원마련등 추진 계획없다고 공약 평가
  - 포항제철, AI 한국지부 회원에게 탈퇴 종용해
- 2면 · 제네바 소식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,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

**제612호(96.3.29, 금) /336**

- 1면 · 서울고법,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

- 민주노총등 강사장퇴진과 방송독립 촉구 연대집회
- 국보법 피해자 30일까지 명동성당서 농성
- 2,3면 · <자료>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-남한편①
- 3면 · 유권자운동연합, 천리안 선거 자료 서비스

**제613호(96.3.30, 토) /339**

- 1면 · 고애순씨 태아사산, 세계적 항의운동-재수감 절대반대, 형법개정 촉구
  - 양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, 검찰 신문 거부
  - 경찰, 사학련 16명 연행
  - <긴급속보> 연세대생 노수석씨 시위중 사망
- 2,3면 · 96년 3월분 총목차(593-613호)

**제614호(96.4.2, 화) /345**

- 1면 · 언론, ‘노수석씨 사인 심장이상’이라고 단정보도, 노씨 구타 증언하는 목격자 다수 나타나
- 2면 · 2일부터 4일까지 한라중공업 노조 본사 앞 상경투쟁
  - 박무영씨사건 항의서한에 대해 홍콩정부 공정재판 약속 답변

**제615호(96.4.3, 수) /347**

- 1면 · 경찰, 노수석씨 죽음속에 방치, ‘노씨사인은 경찰폭력’이라고 대책위 결론
- 2면 ·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-남한편
- 3면 ·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
  - 참여연대, 경인선 대책마련 촉구하며 서울역앞 낮12시에 항의시위
  - 신문의 강제투입률 중앙일보 1위

**제616호(96.4.4, 목) /350**

- 1면 · “책임자 처벌·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” 촉구를 위한 중요공원 제2차 국민대회
  - 장래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 “수석이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...”
  -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
- 2면 · 제네바 소식②-국제법률가위원회, ‘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’

**제617호(96.4.6, 토) /352**

- 1면 · 현중, 연이어 노동자 사망, 노동자 하루 6명 사망, 3백30명 부상
  - 안기부,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
  - 노수석씨 장례, “이대로 보낼 수 없다”는 학생대책위의 요구로 연기
- 2면 ·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-북한편

**제618호(96.4.9, 화) /354**

- 1면 · 학자투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

- 2면 · 노수석씨 부친,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,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
 · '검은 돈'배격서약에 총선후보 3백20명 참여  
 · 정대협, 일본의 위안부 책임회피 비난하여 배상 촉구  
 · 전국연합, 교육정책 비판하는 성명발표

**제619호(96.4.10, 수)**

/356

- 1면 · 장애인 폭행 의경 버짓이 군 복무중,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 
 · 노수석·권희정대책위 구성, 권희정씨 한중의 재로  
 2면 · 노수석씨 망월동에 묻혀, 학교측과 등록금문제 등 해결합의  
 · 세계주거회의 3차 준비회의서 "NGO도 협상대상"이라고 밝혀  
 · 금속연맹, "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" 산재추방주간 선포

**제620호(96.4.12, 금)**

/358

- 1면 ·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, 국보법 폐지 권고  
 · 노수석씨 노제를 보고, 나머지 몫은 남겨진 이들에게...  
 2면 · 재야인사 노수석씨 사건으로 국무총리 면담자리에서 "경찰과실 인정 어렵다"는 답변  
 · 경찰, 피해자 진술무시하고 불법노점상이라며 폭행  
 · 공대협, 장애인비하 발언한 총선 후보 공천철회 요구  
 ·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 내용

**제621호(96.4.13, 토)**

/360

- 1면 ·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해 정부 입장만 반영 개관성이 결여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 
 2면 · 범민련 전창일씨 공판,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
 ·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, 꽃다지 지역 1년6월 선고  
 · 참여연대, 노령수당지급 소송

**제622호(96.4.16, 화)**

/362

- 1면 · 노수석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한 국과수 발표, 경찰에 면죄부 부여  
 · 현중 울들어 중대재해 사망 7명, 안전시설 설치 시급  
 2면 · <자료>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요지

**제623호(96.4.17, 수)**

/364

- 1면 · 삼미특수강(주), 해고자 복직·손배소송 취하등 노조와 합의  
 · 성균관대 학생 황혜인씨, 은몸에 신너뿌려 분신 사망  
 · 황혜인씨 유서내용  
 2면 · 민주노총·장대협 자매결연 맺어,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%수준 요구  
 · 장애인 고용 실태  
 · 클린턴방한 맞아 한미행협 개정 촉구하는 항의시위

**제624호(96.4.18, 목)**

/366

- 1면 ·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,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
 · 성균관대생 잇따른 죽음, 김좌진씨 사인불명확·황혜인씨 분신사망  
 · AI, 양규현씨등 석방 촉구와 노동법 개정 요구  
 2면 · 제네바 소식 ③-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

**제625호(96.4.19, 금)**

/368

- 1면 · 광주지법, 태아사산한 고애순씨 보석 허가돼 재수감 위기 모면, 5월10일 손배소송 첫 재판  
 · 고애순씨 인터뷰-재판부 보석결정은 당연  
 2면 · 단병호씨 4월 혁명상 수상  
 ·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판검사 감시  
 · 5·18자료집 제작·판매  
 · 광주교도소 김동기씨등 장기수 2명 단식농성  
 · 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, 유가족 시신 화장 고집  
 · TV 3사 뉴스 모니터 결과, 뉴스앵커 성차별 심각

**제626호(96.4.20, 토)**

/370

- 1면 · "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" 장애우인구소,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
 · 4월혁명의 산증인 문한영씨 별세, 21일 벽제에서 화장  
 2면 · "김영삼정권 타도·미제축출" 여수 수산대생 19일 분신사망  
 · 고 오영권씨가 남긴 시  
 · 4월혁명 기념식에서 김종필대표 화환 짓밟혀  
 · 현중, 가스폭발로 1명 사망, 20일동안 4명 죽어  
 · 참여연대 장애인정책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  
 · 30대 여인 "김대통령 만나게 해달라"며 분신 중태

**제627호(96.4.23, 화)**

/372

- 1면 · 3년째 원진레이온 약속 불이행으로 자격증 취득한 54명만 재취업  
 · 조수원추모사업회 30일 창립, 발기인 모집  
 2면 · 노점상연합회, 경찰 보복성 구속에 항의  
 · 현정권타도 유서 남긴 오영권씨 장례  
 · 사민청 수배자 성세경씨 불심검문중 연행  
 · 함세환씨등 복송추진 위한 판문점회담 결렬

**제628호(96.4.24, 수)**

/374

- 1면 · "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" PCS범국민대책위 공개토론회 개최  
 · 단체협상중 정성철씨 등 국보법으로 구속

2면 · 96년 임단투 본격화, 7개 노조 파업과 대한보증보험 쟁의 신청

**제629호(96.4.25, 목) /376**

- 1면 · '과거행적'에 칼날 세운 국보법, 하루새 전국 17명 인행·구속
  - 이덕인씨 1백49일만에 문혀 "분노의 염원이 불탄다"
- 2면 · "금속연맹 노사간담회, 사업장 대표 불참 "제3자개입 허용등 언급없었다"
  - 정대협,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
  - 사노맹관련 첫 공판, 검찰 4년전 활동으로 기소
  - "문민정부에도 이런일이!" 범민련 송수신 절단
- 3면 · 체내바 소식 ④ -52차 유엔인권위 모니터, 재소자, 고문·실종문제등 논의 활발

**제630호(96.4.26, 금) /379**

- 1면 · "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인정 못한다", 한국합성노조 고공농성, 상경투쟁 전개
  - 노동계, '신노사관계' 구상에 근로기준 약화 우려
- 2면 · 청년연대, 24일 연행에 대해 항의
  - 경인선지연 1차 공판에서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

**제631호(96.4.27, 토) /381**

- 1면 · 당직변호사제 3주년, 피의자 가족 요청없이도 출동가능케
  - 건설증권 1백50일 파업 끝 타결, 조합원 단결력·자신감 성과로
  - '예견된 산불사고' 미군 공개사과 촉구
- 2면 · 쫓겨다니며 일하는 가난한 이방인,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
  - 청년연대 10명 구속, 항의방문자 집행유예 1년

**제632호(96.4.30, 화) /383**

- 1면 · 유엔인권위 폐막,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
  -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하며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
  - 김세진·이재호씨 10주기 교내 추모식 원천봉쇄
- 2면 · 노운협의장등 3명 집행유예로 석방
  -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
  - "또다른 공안사건이다" 청년연대 기자회견

**제633호(96.5.1, 수) /387**

- 1면 ·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, 신인력정책이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
  -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
  - 일본 491개 단체, 범민련 구속자 석방촉구 서명
  - 경찰, 우상근씨 제3자개입 적용안되자 국보법 적용으로 검거 전력
- 2,3면 · 96년 4월 총목차

**제634호(96.5.2, 목) /390**

- 1면 · 106주년 노동절 기념,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
  - LG그룹 해고자노동자, 본사 건물에 계란던지며 복지 촉구
- 2면 · <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>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
  - 현장방문과 심포지엄 개최, 한국·베트남·중국의 여성운동가들 한자리에
- 3면 ·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아씨 방한 "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!"
  - <현장스케치-노동절기념식 열린 보라매 공원>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 축제

**제635호(96.5.3, 금) /393**

- 1면 · 5·19행사위, 영역별 재조명 작업 광주항쟁 16주년 맞아, 학술·문화행사 줄이어
  - 참여연대,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제정 촉구
- 2면 · 노동운동가 유구영씨 2일 별세 "동지와 민중에 대한 사랑, 건강" 당부
  -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으로 등장한 쇠목마을 실태 "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"

**제636호(96.5.4, 토) /395**

- 1면 · '미군공여지 반환'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, 전국적 확산 기미
  - 전창일씨등 범민련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 제보자 증인신청
- 2면 · 구타여성, 법률지원 절박 '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'
  - 두밀마을학교 현판식, 폐교철회소송 지연
  - 합법출판도 국보적용, 사노맹 징역5년 구형
  - 선명회·한경운동연합 "체르노빌을 돕자"
  - 동두천 산불참사에 미군측 배짱, 위로금 "60만원만 먹이라"

**제637호(96.5.7, 화) /397**

- 1면 · 노조 간부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, 경찰은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
  - 분신한 이진권부위원장과 인터뷰 "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"
- 2면 · '이적표현물 탐독' 전공관련 무죄선고
  - 동의대사건 7주년, 법적 진상규명 요구
  - 광주 인권지기 창립, 인권감시·보장 한몫 다짐

**제638호(96.5.8, 수) /399**

- 1면 ·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,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들 주거권 보장요구
  - 현중, 산업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노조간부 고소
- 2면 · 우도로마을 한인강제징용자들에게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하며 퇴거통보
  - 동아리 강제해체협박에 항의, 대구공전 박동학씨 분신 중대
  - 박노해씨 후원도입 결성 "양심수 석방의 첫발"
  - 아시아사민사회연구모임, 한국사회교육원 모집

· 인권협 대표단체로 천주교인권위 선출

3면 · <자료>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

**제639호(96.5.9, 목)**

**/402**

- 1면 · '좌파 대청소' 작업 노골화, 정치·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
- 주택공사 공권력요청으로 재개발지역주민 연행
- 12일 최종진 후원기도회 "농민운동의 희망을 살립니다"
- 2면 · 기획시리즈① '세계의 인권' 연재를 시작하며
- 민주노총,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 요구
- 과거 행적에 낙인, 사노맹 무조건 유죄

**제640호(96.5.10, 금)**

**/404**

- 1면 · 기무사,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,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예정
- "학생과장이 불 붙었다" 대구공전 분신 박동학씨, 사망전 발언 파장
- 민주노총등 23개 단체, 한국합섬사태 강경대응키로
- 2면 · 검찰, 범민련 중앙간부들에게 "불순세력 득세"이유 중형 구형
- LG그룹 해고노동자 집회 계속
- 여성의 전화 회원들, 이상희할머니 석방 촉구 시위

**제641호(96.5.11, 토)**

**/406**

- 1면 · "원진 노조위원장 취임시킬 수 없다" 가능사 자각증 따면 무조건 취임은 거짓말
- 전학련 3명 추가구속, 군복무자 연행제보
- 2면 · 노사개혁위에 우려반, 기대 반

**제642호(96.5.14, 화)**

**/408**

- 1면 · 한국합섬 노·사 협상제기, 협상결과에 따라 텐트농성등 집회전개
- 브라질 경찰, 무소유농민 학살
- 일본 범민련구원회 모금, 홍보활동 벌여
- 전학련 2명 추가확인
- 2면 · <자료> 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등 무죄판결

**제643호(96.5.15, 수)**

**/410**

- 1면 ·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, 가무사령관 비리 진면 고발
- 한국합섬, 고소·고발취하등 잠정합의
- 여성민우회 27일부터 예비 신랑·신부학교
- 2면 · 계속된 노조의견 외면하고 현중, 산재문제에 대대적으로 투자키로
- '미군범죄 공론화해야'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
- 주거회의 NGO 공동대표 방한, 김덕룡장관 만나 주거회의 홍보요청

·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, 교사·학부모·시민 선언

**제644호(96.5.16, 목)**

**/412**

- 1면 · 기무사·경찰,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씨 집중추적
- 부친 대홍기계, 노사합의로 '작업중지권' 확보
- 고에순씨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
- 공동육아연구원 27일부터 방과후프로그램 교육
- 2면 · 여연등 단체들 15일 '가정폭력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' 구성
- 노나매기 판결에서 재판부 "좌경사상 좌시못하나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"
-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, 시사뉴스 제82호 인용

**제645호(96.5.17, 금)**

**/414**

- 1면 · 대구공전 사태, 분신조장 의혹 학교측 되레 유가족 고발
- 경찰, 이적단체 혐의로 전학련 22명 구속·수배
- 2면 · 정부책임자 처벌·구속노동자 석방 필요 "한국합섬 사태, 끝나지 않았다"
- 민주노총, 현승중씨 노동자 천시 발언에 사과요구 성명
- 필리핀·대만등 일본측의 위안부 문제 회피에 항의
-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

**제646호(96.5.18, 토)**

**/416**

- 1면 · 시민연대, '인권과 평화'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"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"
- 전국서 5·18국민대회 '미국사죄, 악법철폐' 촉구
- 2면 · 민주노총,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, "법·의식 개혁, 노사개혁의 전제"
- 제일동포·동티모르·독일의 인권문제

**제647호(96.5.21, 화)**

**/418**

- 1면 · 전국연합, "정부 창구일원화로 전달 지연" 북한수재민돕기 현금 8천76만원
- 대구공전 사태 해결기미 보이려나?
- 2면 · 5월민중항쟁 16주년, 광주표정 "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..."

**제648호(96.5.22, 수)**

**/420**

- 1면 ·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
- 아시아인권운동가 서울 방문
- 2면 ·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"민간·정부 연대, 지속가능한 개발모색"
- 김귀정열사 5주기, 열사 10일 합동추모제
- 전국연합 철세당선자 비난 "민의 저버린 처사"

**제649호(96.5.23, 목)**

**/422**

- 1면 ·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“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”  
· 대구공전 2차협상 결렬 “3천만원으로 해결하자”
- 2면 ·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대책 절실, 한국산본사태 ‘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’
- 3면 · 세계인권② 실종-“우리가 그들은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‘실종’되는 것이다”

**제650호(96.5.25, 토) /425**

- 1면 ·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 
· 구속만기 직전 보석허가, 광주 진정연 8명 풀려나  
· 26일 이재호열사 10주기, 추모문집 8월 발간 예정
- 2면 ·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,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

**제651호(96.5.28, 화) /427**

- 1면 · 5·18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, 불안·우울·신체증후군에 시달려  
· 통일원·안기부 압력에 남북불교 공동기도 무산
- 2면 ·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, 인권협·참여연대 지지성명과 대표단 파견  
· 재판부 국보법 필요하다며 범민련관련자들 실형선고

**제652호(96.5.29, 수) /429**

- 1면 · ‘기무사비리, 법정에서 밝혀질까’ 기무사,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청
- 2면 · ‘좌경소탕작전’ 이번엔 전학투런,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 
· 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인터뷰 “그들은 들뜬처럼 버러졌다”  
· 주거회의 감가자들 출국전 기자회견  
· 전여농,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

**제653호(96.5.30, 목) /431**

- 1면 · “자고나면 또 구속, 내일이 두렵다”, 서울·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
- 2면 · 제일동포 장기수 이성우씨, “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”며 행정심판 제기  
· 조작간첩 이성우씨 인터뷰 “내 자식들은 ‘한국이 무섭다’고 한다”  
· AI, 웨이씨 석방 캠페인

**제654호(96.5.31, 금) /433**

- 1면 · 서울시 주취 성폭력 세미나, 어린이 성폭력 78%, 주변사람 범행  
· 서울청년단체 30일부터 나사청 구속자석방 농성
- 2면 · <자료>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(95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)  
· 전교조, ‘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’라며 교육주체 참여 요구

**제655호(96.6.1, 토) /437**

- 1면 ·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,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

-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, 해고자복직·단결권 보장 요구
- “쌀지원 허용하라” 전국연합 민간허용촉구
- AI, 전학련등 석방 촉구, 좌경척결발언 파장비난
- 전국연합통신 100호, 민족민주정론지로 출발
- 2,3면 · <인권하루소식> 96년 5월분 총목차

**제656호(96.6.4, 화) /440**

- 1면 · 학살자 처벌요구 단식농성, 전국연합 법원앞 집회·한총련 명동성당에서  
· 안부편지 ‘통신’으로 께맞추기, 2·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
· 기아노동자 복직투쟁, 집단폭행으로 3명 입원
- 2면 · 인권협 시사뉴스 탄압중단 성명발표  
· 민변 새집행부 구성, 회장에 최영도변호사  
· 민언협, 강성구사장 즉각 퇴진 성명서 발표  
· 향의방문자 전원연행, 나사청 불구속 7명  
· 참여연대,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서명작업  
· 주간인권흐름(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)

**제657호(96.6.5, 수) /442**

- 1면 ·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,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
- 2면 ·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, 20억 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
· 박동학씨 장례, 가족·대구공전측 합의로 치러  
· PCS범국민대책위 15일 전국집회  
· 한교협, 김해성목사 석방 촉구 규탄성명  
· 공노대 대표단, OECD방문 프랑스·독일노조 ‘직권중재 철폐 적극 지원’  
· 공공부문노조, 직권중재 철폐·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하며 일제히 쟁의발생 신고

**제658호(96.6.7, 목) /444**

- 1면 · 기무사, “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”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“뿔뿔이 싸우겠다”  
·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대위 결성  
· 정대협, 아시아평화기금 중단촉구와 일본의원 망원 규탄
- 2면 · 현중,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 
· 참여연대, 효산콘도 특혜의혹 양심선언한 현 주사 복직 요구  
· 범민련 씨말리기, 강순정씨등 2명 연행  
· <자료>-대법원 결정문 “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”

**제659호(96.6.8, 금) /446**

- 1면 ·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, 경찰관은 신분·동행장소·목적 등 밝혀야  
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
·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“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”



- 2면 · 김해성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,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
  - 민족회의 통일정보 제공
  - 경원대 사태, 폭력배 등장으로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
  - PCS범대위 무한 농성, 정보통신특별법 위해 국회청원
  - KNCC 인권센터 출범, 인권침해 진상규명 등 주력

**제660호(96.6.11, 토)**

/448

- 1면 · 96 임단협 최대현안, 해고자복지 전혜투·공혜투 무기한 명동농성 돌입
  - LG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
  - 제2회 세계주거회의서 정부 '주거권' 인정
- 2면 · 외노대 '보호법제정' 농성, 정부 계속 단속 밝혀
  - 전국연합, 악법철폐, 경제민주화 요구하는 6월항쟁 9주기 성명
  - 시사뉴스사 "구속수사 공평치 않다"며 석방촉구
  - 화력발전소 건설발대, 영흥도 주민 무기한 농성
  - 주간인권호름(6월3일부터 9일까지)

**제661호(96.6.12, 화)**

/450

- 1면 · 교장이 상습적으로 제자 성추행 전교조, 황교장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 요구
  -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 항의 "통신주권, 재벌에게 줄 수 없다"
  - 경원대, 대학씨름부 출신 보디가드 고용
- 2면 · 살인누명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 한 김기웅 순경
  - 인권운동 길찾기 토론회, 청년·학생 연대필요

**제662호(96.6.13, 수)**

/452

- 1면 ·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, 운영위 조직·선출과정 문제 제기
  - AI,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
  - PCS범대위 정통부·LG 앞 시위
  - 사노맹 구속자들 전원 석방 '사노맹은 와해된 조직'
- 2면 · 세계의 인권③ "사형제도-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?"

**제663호(96.6.14, 목)**

/454

- 1면 ·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산업연수생 증언 "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, 월급 4만원"
  -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"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" 강변
- 2면 · <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> 20년 농민운동에 헌신, "계획은 있다"

**제664호(96.6.15, 금)**

/456

- 1면 · "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"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, 편집기자재등 압수
  - 전국연합, 정부의 이중적 태도 비난하며 해고자 복지촉구

- 재독교민 7단체 "김해성목사 석방하라"며 김대통령에게 항의서한
- 2면 · 검찰,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한 구속영장으로 구속
  - 해고자복지·민주적 노사개혁 요구하며 권영길위원장등 명동성당 농성돌입

**제665호(96.6.18, 화)**

/458

- 1면 · 교육·인권단체 참여해 신양중공대위 결성 '교장퇴진, 학생인권보호 앞장'
  - 민주노총 소속 1백8개 노조 임단협 타결, 비자금 조성 금지 등 사회적 책무조항 요구
  -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등 활동한 박순금 장로 운명
  - 5회 불교인권상에 김창한 해고노동자 수상
  - 의료인, 유니세프 통해 북한수재민돕기 성금
- 2면 · 아태회의, 외국인노동자 문제 논의 "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"
  - 박장희교수 상고 기각, 국가기밀 범위모호
  - 민변, 해고자 복지 촉구 성명
  - 주간인권호름(6월10일부터 16일까지)

**제666호(96.6.19, 수)**

/460

- 1면 · 푸른영상 대표 불구속 수사, 혐의는 음비법, 조사는 국보법
  - 민주노총소속 노조, 20일 연대파업 결의 "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"
  - 전국연합, "광주와 무관하다"는 전두환씨 발언 항의
- 2면 · <자료>-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'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'위반 사건

**제667호(96.6.20, 목)**

/462

- 1면 · 언론, 만도 파업 쟁점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파업 불리
  - 신양중 학생들 "성추행교장 퇴진" 한 목소리, 공대위 신양중·시교육청 항의방문
  - 통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"go onekr"
- 2면 · <자료>-AI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

**제668호(96.6.21, 금)**

/464

- 1면 ·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,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
  - 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"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..."
  - 전국연합, 검찰 인권유린 빈번하다며 처벌 촉구
  - 딸들을 위한 캠프, 여성의 전화 개최
- 2면 · 제7회 인권영화제 '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'

**제669호(96.6.22, 토)**

/466

- 1면 · 일수상 방한, '과거청산' 한 목소리, 위안부 법적배상·한일협정 폐기
  - 한국통신 오용철폐 간담으로 18일 별세
  - "전국연합 자료집 제작·배포, 이적성 있다", 박충렬씨 징역 10년 구형

- 2면 · <성명서>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
· <세계주거회의 참관기>-이정운(참여연대)

**제670호(96.6.25, 화)**

**/468**

- 1면 · “남은 여성 혈육과 보내고 싶다”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 
· <3명 포로의 삶> “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”  
·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, 노동법 개정 재촉구  
2면 · “해고자복지·임단협 논의하자” 민주노총,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  
· WCC, 법무부장관에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항의서한  
· 주간인권흐름(6월17일부터 23일까지)

**제671호(96.6.26, 수)**

**/470**

- 1면 · ILO,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합법화·제3자개입 금지 등 철폐 강력 권고  
2면 · 마이크로전자 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,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 
·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, 보수적 여성관 여전  
· 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, 학문자율·대학민주화 침해  
· 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,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  
· 결사의 자유위원회란?

**제672호(96.6.27, 목)**

**/472**

- 1면 · “시위대, 이적단체일 수 있다”,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남총련 최근 23명 구속  
· 참여연대,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‘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’  
· 여연 지은희대표 방일,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 
· 28일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소식  
2면 · <자료>-ILO ‘결사의 자유 위원회’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(사건 번호 1865)

**제673호(96.6.28, 금)**

**/474**

- 1면 · “목사고 뒤편 다 끌어내!” 경찰,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 
·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 
·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
2면 · <자료>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, 즉심피해자 구금은 불법  
· 신앙중 공대위, 성주행 황교장 고발  
· 법원 검찰 항고 기각,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

**제674호(96.6.29, 토)**

**/476**

- 1면 · 공안탄압 우려 확산, 전남대 94년 학생회간부 13명 긴급구속  
· 경실련 등 ‘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’ 촉구  
· ‘난폭학생은 제외’ 교육청 학생선도교육  
· 탄압에 언론 침묵, 시사뉴스사 유감표명

**총목차 5월분 11·1**

소수위원회의정수심

이시영

1면 · “남은 여성 혈육과 보내고 싶다”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 
· <3명 포로의 삶> “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”  
·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, 노동법 개정 재촉구  
2면 · “해고자복지·임단협 논의하자” 민주노총,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  
· WCC, 법무부장관에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항의서한  
· 주간인권흐름(6월17일부터 23일까지)

1면 · ILO,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합법화·제3자개입 금지 등 철폐 강력 권고  
2면 · 마이크로전자 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,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  
·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, 보수적 여성관 여전  
· 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, 학문자율·대학민주화 침해  
· 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,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  
· 결사의 자유위원회란?

1면 · “시위대, 이적단체일 수 있다”,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남총련 최근 23명 구속  
· 참여연대,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‘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’  
· 여연 지은희대표 방일,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 
· 28일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소식  
2면 · <자료>-ILO ‘결사의 자유 위원회’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(사건 번호 1865)

1면 · “목사고 뒤편 다 끌어내!” 경찰,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 
·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 
·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
2면 · <자료>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, 즉심피해자 구금은 불법  
· 신앙중 공대위, 성주행 황교장 고발  
· 법원 검찰 항고 기각,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

1면 · 공안탄압 우려 확산, 전남대 94년 학생회간부 13명 긴급구속  
· 경실련 등 ‘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’ 촉구  
· ‘난폭학생은 제외’ 교육청 학생선도교육  
· 탄압에 언론 침묵, 시사뉴스사 유감표명

### <인권하루소식> 96년 6월분 총목차(655-674호)

호	월일	면	기사제목
664	6/15	1	“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”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, 편집기자계등 압수/전국연합, 정부의 이중적태도 비난하며 해고자 복직촉구/재독교민 7단체 “김해성목사 석방하라”며 김대통령에게 항의서한
		2	검찰,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한 구속영장으로 구속/해고자복직·민주적노사개혁 요구하며 권영길위원장등 명동성당 농성돌입/인권간행물
665	6/18	1	교육·인권단체 참여해 신앙중공대위 결성 ‘교장퇴진, 학생인권보호 앞장’/민주노총 소속 1백8개 노조 임단협 타결, 비자금 조성 금지 등 사회적 책무조항 요구/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등 활동한 박순금 장로 운명/5회 불교인권상에 김창한 해고노동자 수상/의료인, 유니세프 통해 북한수재민 돕기 성금
		2	아태회의, 외국인노동자 문제 논의 “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”/박창희교수 상고 기각, 국가기밀 범위모호/민변, 해고자 복직 촉구 성명/주간인권호름(6월10일부터 16일까지)
666	6/19	1	푸른영상 대표 불구속 수사, 혐의는 음비법, 조사는 국보법/민주노총소속 노조, 20일 연대파업 결의 “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”/전국연합, “광주와 무관하다”는 전두환씨 발언 항의
		2	<자료>-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’위반 사건
667	6/20	1	인론, 만도 파업 쟁점호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파업 불리/신양중 학생들 “성추행교장 퇴진” 한 목소리, 공대위 신앙중·시교육청 항의방문/동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“go onekr”
		2	<자료>-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“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”
668	6/21	1	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, 음비법 폐기 대책위 22일 구성/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“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...”/전국연합, 검찰 인권유린 빈번하다며 처벌 촉구/딸들을 위한 캠프, 여성의 전화 개최
		2	제7회 인권영화제 ‘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’
669	6/22	1	일수상 방한, ‘과거청산’ 한 목소리, 위안부 법적배상·한일협정 폐기/한국통신 오용철폐 간담으로 18일 별세/“전국연합 자료집 제작·배포, 이적성 있다”, 박충렬씨 징역 10년 구형
		2	<성명서>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/<세계주거회의 참가기>-이정운(참여연대)
670	6/25	1	“남은 여성 혈육과 보내고 싶다”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/<3명 포로의 삶> “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”/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, 노동법 개정 재촉구
		2	“해고자복직·임단협 논의하자” 민주노총,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/WCC, 법무부장관에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항의서한 /주간인권호름(6월17일부터 23일까지)
671	6/26	1	ILO,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합법화·제3자개입 금지 등 철폐 강력 권고
		2	마이크로전자 노조 지키기위한 총투쟁 전개, 노조위원장 음독자살 기도/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, 보수적 여성관 여전/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, 학문자율·대학민주화 침해/충남지역 교사 설문조사, 교육감 선출 개선요구/결사의 자유위원회란?
672	6/27	1	“시위대, 이적단체일 수 있다”,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남총련 최근 23명 구속/참여연대,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‘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’/어연 지은희대표 방일,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/28일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소식
		2	<자료>-ILO ‘결사의 자유 위원회’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(사건 번호 1865) “한국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철폐, 민주노총합법화 하라”
673	6/28	1	“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!” 경찰,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/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/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
		2	<자료>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, 즉심피해자 구금은 불법/신양중 공대위, 성추행 황교장 고발/법원 검찰 항고 기각,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언/행사와 동정
674	6/29	1	공안탄압 우려확산, 전남대 94년 학생회 간부 13명 긴급구속/경실련 등 ‘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’촉구/난폭학생은 제외’ 교육청 학생선고 교육/탄압에 언론 침묵, 시사뉴스사 유감표명
		2·3	96년 5월분 총목차(655-674호)

# 인권하루소식

## 합본 VI 색인

(제501호 - 제674호)

부록: 「<인권하루소식> 합본6호」 색인

<색인순서>

- 482 /1. 고문 - <박충렬 씨 사건>→<국가보안법>
- 482 /2. 과거청산/불처벌(5·18)
- 484 /3. 교육·학원 - <경원대> <노수석씨 사망사건>→<경찰폭력> <분신사건> <전교조>
- 486 /4. 교통
- 486 /5.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 - <노수석 씨 사망사건> <불법연행·수사> <안기부> <이덕인 씨 사망사건> <철거폭력>→<주거·도시빈민>
- 488 /6. 국가보안법 - <꽃다지> <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> <나라사랑청년회> <민중정치연합> <박용길 장로사건> <박창희 교수사건> <박충렬·김태년 씨 사건> <사노맹 재건 협의> <사회주의 학생연합> <서울대 노나메기> <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> <전국학생정치연합> <전국학생투쟁연합> <전노연합> <조국통일 범민족연합> <조작간첩·신귀영 씨 사건> <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> <중부지역당 재건사건> <진보정치연합> <충남대 자주대오> <한국노동청년연대> <한국사회의 이해 사건>
- 494 /7. 국제 - <국제앰네스티(AI)> <동티모르> <미국무부 인권보고서> <유엔> <유엔인권위원회> <제일동포·우드로마을 사건>
- 496 /8. 노동 - <개인휴대통신(PCS)> <공공부문노조> <국제노동기구(ILO)> <근로자파견제> <노사관계개혁위원회> <민주노총> <박무영 씨 사건> <병역특례 해고자·조수원> <산업재해·작업중지권> <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·김해성 목사 사건> <여성노동자> <외국인노동자> <원진 레이온> <제3자개입금지> <한전노조·김시자> <한국합섬> <해고자문제/전해투>
- 503 /9. 노인 10. 농민
- 503 /11. 미군범죄 - <공여지문제> <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> <한미행정협정>
- 504 /12. 북한 - <북한수재>
- 505 /13. 사법 14. 사회보장
- 506 /15. 양심수·장기수
- 507 /16. 어린이·청소년
- 508 /17. 언론 - <시사뉴스사>
- 508 /18. 여성 - <가정폭력> <성폭력> <위안부> <한국여성단체연합>
- 510 /19. 인권교육 - <기획시리즈> <특별강의>
- 510 /20. 인권·사회단체 - <AI한국지부> <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> 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 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 <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> <불교인권위원회> <인권운동사랑방> <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> <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> <천주교인권위원회> <한국교회협의회> <한국인권단체협의회>
- 514 /21. 인권일반 - <음비법 위반 사건>
- 514 /22. 장애인
- 514 /23. 주거·도시빈민 - <세계주거회의> <용인수지구·신연숙 씨 사망사건>
- 515 /24. 형형 - <고애순 씨 사건>
- 516 /25. 환경 - <영광핵발전소>
- 517 /26. 기타 - <인권간행물> <인권하루소식 월 총목차> <주간인권호름>

## 1. 고문

- 문국진씨 항소심, 피고측 증인 "모른다" 일관/95.10.25 1 511 / 105
- <특별기고> 고문·폭력수사 이제 그만(남향숙)/95.12.9 2 544 / 188
- 서울 고법, 문국진씨 고문 후유증 배상 판결/96.2.7 1 579 / 267
- 5·18피해자 증후군 연구 발표/96.5.28 1 651 / 427
- <자료>-AI 고문 등에 관한 의학적 조사 원칙 발표/96.6.20 2 667 / 463

## <박종철 씨 사건>-><국가보안법>

## 2. 과거청산/불처벌(5·18)

### <5·18>

- 노태우씨 망언에 분노·규탄, 학살 면죄부 헌정권에도 책임/95.10.12 1 502 / 85
- 언론계 6천4백여명, 5.18특별법 제정 선언/95.10.12 1 502 / 85
- 전국 1백여 곳에서 5.18서명운동 전개/95.10.13 1 503 / 89
- 전국연합, 노씨 사과 학살책임 인정 요구/95.10.14 1 504 / 91
- 민변 5.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및 서명운동/95.10.17 1 505 / 93
- 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농성, 학살자 처벌 정권퇴진 주장/95.10.17 1 505 / 93
- 여성단체 민자당사 시위, 의사2천3백여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/95.10.18 1 506 / 95
- <자료>5.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(요약)/95.10.18 2 506 / 96
- 5.18 4천여 수사 촉구/95.10.21 2 509 / 102
- 각계원로 헌법 재판소에 5.18 의견서 제출/95.10.24 1 510 / 103
- 노씨 비자금 규탄 한 목소리, 5·6공 비자금 5.18특별법 제정 촉구/95.10.24 2 510 / 104
- 전국연합, 노태우씨 항의방문/95.10.25 2 511 / 106
- 참여연대 전 검찰총장등 직무유기로 고발,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/95.10.25 2 511 / 106
- 범국민비대위 결성, 5.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/95.10.27 1 513 / 109
- '국민 우롱' 노태우씨 사과 비난, 구속수사 특검제 도입 촉구/95.10.28 1 514 / 111
- 5.18비대위, 국민행동의 날 5.18특별법 노태우씨 구속 촉구/95.11.2 1 517 / 121
- 긴급제안-노씨 전 재산 몰수, 인권피해자 위해 /95.11.2 2·3 517 / 122,123
- 5.18비대위 전국에서 학살자 처벌 시위/95.11.4 1 519 / 127
- <5.18문제와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들>-특별검사제 도입돼야/95.11.4 2 519 / 128
- 5.18비대위 11일 2차 국민 행동 돌입, 비자금·5.18문제 결합/95.11.9 2 522 / 134
- 제2차 국민 행동의 날, 종묘 공원 집회/95.11.11 1 524 / 137
- 5.18비대위, 21일부터 매일 특별법 제정 요구 국회 집회/95.11.15 1 526 / 141
-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, 노씨와 차별대우 철폐등 촉구/95.11.21 1 530 / 149
- 5.18특별법 다시 불붙어, 5.18비대위 매일 집회/95.11.21 2 530 / 150
- 5.18비대위,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 집회 시작/95.11.22 2 531 / 152
- 대선자금 공개 요구 사회단체 목소리 높아져/95.11.22 2 531 / 152
- 민변, 5.18헌법소원 재판부 기피 신청, 정경식씨 신군부 협조/95.11.23 1 532 / 153
- 종교 4단체, 5.18 특별법 제정 대선자금 공개 촉구/95.11.24 1 533 / 155

- 정의구현사제단, 5.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전개 결의/95.11.24 1 533 / 155
- 민자당 5.18특별법 제정키로/95.11.25 1 534 / 158
- 특검제 도입 없는 5.18특별법 무의미, 전국연합·한총련 시위/95.11.28 1 535 / 160
- 5.18비대위, 특검제 도입 검찰 사과 강력 촉구/95.11.28 1 535 / 160
- 민예총 5.18특별법 성명/95.11.29 1 536 / 162
- 5.18관련자 헌법소원 취하, 현재 5.18선고 무산/95.11.30 2 537 / 166
- <5.18특별법 제정 공청회>-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/95.11.30 2 537 / 166
- 검찰 5.18 제수사 안돼 5.18비대위등 비난 성명/95.12.2 2 539 / 175
- 5.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/95.12.5 1 540 / 177
- 5.18비대위 5.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/95.12.6 1 541 / 179
- <자료> 5.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 조항/95.12.6 3 541 / 181
- 5.18비대위 특검제 도입, 국회 앞 촉구 집회/95.12.7 2 542 / 183
- 5.18비대위 전국 집회/95.12.9 1 544 / 187
- 전국연합, 최규하씨 증언 촉구, 검찰 최선 다해야/95.12.12 1 545 / 189
- 전국 서명 교수 기자회견 5.18특별법 7대원칙 천명/95.12.13 1 546 / 192
- 5.18비대위 등 12.12 16주년 성명 발표/95.12.13 2 546 / 193
- 청년단체,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안양교도소 시위/95.12.13 2 546 / 193
- 5.18광주공대위, 최규하씨 5.18등 증언 촉구/95.12.14 2 547 / 195
- 민변 5.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·각 정당에 제출/95.12.15 1 548 / 196
- 민교협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토론/95.12.20 1 551 / 202
-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/95.12.20 1 551 / 202
- 5.18특검제 배제에 우려, 5.18비대위등 특별법 성명/95.12.20 2 551 / 203
- 농성자 12명 경찰 연행, 명동성당 농성 무기 연기/95.12.22 2 553 / 207
- 5.18특별법 성과보고 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/95.12.22 2 553 / 207
- 5.18공대위 5·6공 청산 작업도 병행/95.12.27 2 555 / 211
- <현장스케치> 1백75일만에 끝낸 5.18 명동성당 농성/96.1.10 2 559 / 225
- 5.6공 청산 대토론회, 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/96.1.13 2 562 / 231
- <자료> 80년 계엄포고령 피해자 특별제심 청구 성명/96.1.16 2 563 / 233
- 전국연합·광주전남공대위, 5.18 특별법 위헌 제청 비난/96.1.20 2 567 / 241
- 전국연합·민변 성명, 검찰 5.18수사 결과 비난/96.1.24 1 569 / 244
- 5.18 공대위 토론회, 5.18학살자 전원 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/96.1.25 1 570 / 246
- 5.18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/96.1.25 1 570 / 246
- 바른언론, 전씨에 돈 받은 언론인 공개 촉구/96.2.7 1 579 / 267
- "5.6공 완전 청산·쿠데타 관련자 전원 처벌" 전국연합 시위/96.2.27 1 590 / 289
- 전두환·노태우 2차 공판서 강민조씨 전씨 가족들에게 폭행 당해/96.3.12 1 599 / 310
- 강민조씨, 전재국씨등 고소/96.3.13 1 600 / 312
-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, 노태우씨 재산 환수 촉구/96.3.14 1 601 / 314
- <자료> 5·18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규탄 성명/96.3.14 2 601 / 315
- 5.18 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, 민주법학 10호 발간/96.3.15 1 602 / 317
- 유가협등 전씨 세아들 폭력 혐의로 고발/96.3.16 1 603 / 318

- 5·18자료집 제작·판매/96.4.19 2 625 / 369
- 5·18행사위, 영역별 제조명 작업 광주항쟁 16주년 맞아/96.5.3 1 635 / 393
- 전국서 5·18국민대회 '미국 사죄, 악법 철폐' 촉구/96.5.18 1 646 / 416
- 5월민중항쟁 16주년, 광주 표정 "전국 추모 행렬 끊이지 않아..."/96.5.21 2 647 / 419
- 5·18피해자 증후군 연구 발표, 불안·우울·신체증후군에 시달려/96.5.28 1 651 / 427
- 한총련 학살자 처벌 요구 단식농성, 전국연합 법원 앞 집회/96.6.4 1 656 / 440
- 전국연합, "광주와 무관하다"는 전두환씨 발언 항의/96.6.19 1 666 / 460

#### <광주학살 미군 개입>

- 광주학살 '미국개입설' 모두 사실, 재야단체 미국의 사과 촉구/96.2.29 1 592 / 293
- 전국연합,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촉구 집회 매주 미대사관 앞/96.3.27 1 610 / 332
- '미군범죄 공론화해야'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/96.5.15 2 643 / 411

### 3. 교육·학원

-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,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/95.10.13 1 503 / 89
- <함께걸음 통합교육 한마당 스케치>/95.10.13 2 503 / 90
- 민교협·사교련, 비리 사학 경영주체 바꿔야/95.10.17 2 505 / 94
- 교육단체등 교육개혁법 공청회 열어/95.11.1 2 516 / 120
- 학교급식 연대회의, 국교 급식 전면 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 청원/95.11.16 1 527 / 143
- 고교 입시 성차별은 평등권 위배, 고입 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/96.1.18 1 565 / 236
- 고입 선발 피해 여학생 학부모, 강력 대응키로/96.1.20 1 567 / 240
- 학자투 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/96.4.9 1 618 / 354
- 전국연합, 교육정책 비판하는 성명 발표/96.4.9 2 618 / 355
- 노수석·권희정대책위 구성, 권희정씨 한중의 재로/96.4.10 1 619 / 356
- 두밀마을학교 현판식, 폐교 철회 소송 지연/96.5.4 2 636 / 396
-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, 교사·학부모·시민 선언/96.5.15 2 643 / 411
- 부천고 교사, 운영위 조직·선출 과정 문제 제기/96.6.13 1 662 / 452
- 교수제임용제 개정 촉구, 학문자율·대학민주화 침해/96.6.26 2 671 / 471
- 충남지역 교사 설문 조사, 교육감 선출 개선 요구/96.6.26 2 671 / 471
- 충남대책위 결성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/96.6.28 1 673 / 474
- '난폭 학생은 제외' 교육청 학생 선도 교육/96.6.29 1 674 / 476

#### <경원대 분규>

-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씨 4일 분신 중태/95.12.14 1 547 / 194
- 분신 경원대생 사망/95.12.15 1 548 / 196
- 경원대생 경찰청 시위, 고문 책임자 처벌 요구/95.12.21 2 552 / 205
- 장현구씨 사건 미궁으로, 경원대 교수가 학생 폭행/96.1.11 2 560 / 227
- 장현구씨 장례대책위, 고문 가혹행위 진상 규명 요구/96.1.13 2 562 / 231
- 고 장현구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/96.1.17 1 564 / 234
- 장현구씨 아버지 장남수씨 인터뷰/96.1.17 1 564 / 234

- 경원대, 천막 철거 학생들 농성 계속 결의/96.1.18 2 565 / 237
- 경원대생,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, 경찰측 고문 사실 부인/96.2.8 1 580 / 269
- 경원대 교문앞 철탑 철거, 학교측 학생에 폭언·폭행/96.2.14 1 584 / 277
- 경원대, 언론사에 '학생이 교수 감금'했다고 허위 제보/96.3.2 1 593 / 297
- 경원대측 무조건 장례 요구하며 학생 징계 강행/96.3.5 1 594 / 300
- 경원대 총장, 학생 6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/96.3.6 1 595 / 302
- 경원대, 총학생회 죽이기-제적 2명, 무기정학 5명 등 중징계 조치/96.3.8 1 597 / 306
- 경찰 한밤중 경원대 난입해 전총학생회장 연행/96.3.13 1 600 / 312
- 경원대생 2백48명, 총장·학생처장 고발/96.3.16 1 603 / 318
- 학원정상화 요구하며 경원대생 또다시 사망/96.4.9 1 618 / 354
- 인권협 경원대 사태 해결 촉구 방문/96.4.19 1 625 / 368
- 경원대 장현구·진철원씨 장례 치르기로/96.4.24 2 628 / 374
- 경원대문제 정부, 시민·사회단체 나서야/96.4.24 2 628 / 374
- 장현구씨 장례 치르는 중 경찰, 운구행렬에 최루탄 난사/96.4.26 2 630 / 380
- 경원대, 학생 11명 추가 고발, 공권력 투입 요청/96.5.4 1 636 / 395
- 경원대교수, 학부모에게 욕설, 구타/96.5.11 1 641 / 406
- 경원대 협상 제자리, 학교측 합의된 의제 거부/96.5.30 1 653 / 431
- 인권협 대표단,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/96.5.31 1 654 / 433
- 경원대 사태, 폭력배 등장으로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/96.6.8 2 659 / 447
- 경원대, 대학씨름부 출신 보디가드 고용/96.6.12 1 661 / 450

#### <노수석 씨 사망 사건>→<경찰 폭력>

#### <분신 사건>

- 성균관대 학생 황혜인씨, 은몸에 신너 뿌려 분신 사망/96.4.17 1 623 / 364
- 황혜인씨 유서 내용/96.4.17 1 623 / 364
- 성균관대생 잇따른 죽음, 김좌진씨 사인 불명확·황혜인씨 분신 사망/96.4.18 1 624 / 366
- 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, 유가족 시신 화장 고집/96.4.19 2 625 / 369
- "김영삼정권 타도·미제 축출" 여수 수산대생 19일 분신 사망/96.4.20 2 626 / 371
- 고 오영권씨가 남긴 시/96.4.20 2 626 / 371
- 현정권 타도 유서 남긴 오영권씨 장례/96.4.23 2 627 / 373
- 동아리 강제 해체 협박에 항의, 대구공전 박동학씨 분신 중태/96.5.8 2 638 / 401
- "학생과장이 불 붙었다" 대구공전 분신 박동학씨, 사망진 발언 파장/96.5.10 1 640 / 404
- 대구공전 사태, 분신 조장 의혹 학교측 되레 유가족 고발/96.5.17 1 645 / 414
- 대구공전 사태 해결 기미 보이려나?/96.5.21 1 647 / 418
- 대구공전 2차협상 결렬 "3천만원으로 해결하자"/96.5.23 1 649 / 422
- 박동학씨 장례, 가족·대구공전측 합의로 치러/96.6.5 2 657 / 443

#### <전교조>

- 전교조, 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/95.11.15 2 526 / 142

· 전교조, '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'라며 교육 주체 참여 요구/96.5.31 2 654 / 434

#### 4. 교통

· 녹색교통운동, 설문조사 결과 발표, 장애인 교통시설 매우 불편/96.1.20 2 567 / 241  
· 녹색교통, 대기오염 측정 시민 모니터 지도 제작/96.2.14 2 584 / 278  
· <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> 교통서비스는 현대인의 기본권/96.5.2 2 634 / 391

#### 5.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

· 김귀정씨 사망 국가 배상, 대법원 원심으로 확정/95.11.11 2 524 / 138  
· 박영생씨 재판 증인 진술,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/95.11.28 1 535 / 160  
· 대검찰청, 유서 사건 재항고 기각/95.12.15 1 548 / 196  
· 경찰 조수원 씨 장례 행사 원천봉쇄, 노제 없이 대우정면에서 영결식/96.1.6 1 557 / 220  
· 서울지법, '경찰 불법 주거 침입 배상하라' 판결/96.1.6 1 557 / 220  
· 김세진·이재호 씨 10주기 교내 추모식 원천 봉쇄/96.4.30 1 632 / 383  
· 동의대사건 7주년, 법적 진상 규명 요구/96.5.7 2 637 / 398  
· 전국연합, 검찰 인권유린 빈번하다며 처벌 촉구/96.6.21 1 668 / 464

#### <노수석 씨 사망 사건>

· <긴급 속보> 연세대생 노수석 씨 시위중 사망/96.3.30 1 613 / 339  
· 언론, '노씨 사인 심장이상' 보도와는 달리, 구타 목격자 다수 나타나/96.4.2 1 614 / 345  
· '노 씨 사인은 경찰폭력'이라고 대책위 결론/96.4.3 1 615 / 347  
· "책임자 처벌·폭력 진압 방지 대책 마련" 촉구 국민대회/96.4.4 1 616 / 350  
· 장례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 "수석이는 과잉 진압으로 희생..."/96.4.4 1 616 / 350  
· 노수석 씨 장례, "이대로 보낼 수 없다"는 학생대책위의 요구로 연기/96.4.6 1 617 / 352  
· 노수석 씨 부친,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, 경찰 처벌 요구/96.4.9 2 618 / 355  
· 노수석·권희정대책위 구성, 권희정씨 한중의 재로/96.4.10 1 619 / 356  
· 노수석 씨 망월동에 묻혀, 학교측과 등록금 문제 등 해결 합의/96.4.10 2 619 / 357  
· 노수석 씨 노제를 보고, 나머지 묻은 남겨진 이들에게.../96.4.12 1 620 / 358  
· 국무총리, 노수석 씨 사건에 "경찰 과실 인정 어렵다" 답변/96.4.12 2 620 / 359  
· 국과수 발표, 노수석 씨 죽음 단순 심장사/96.4.16 1 622 / 362

#### <불법 연행,수사>

·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 불법난입, 수배자 오인/95.10.17 2 505 / 94  
· 김승호 씨 5시간만에 풀려나, 동대문서 수배자로 오인/95.10.18 2 506 / 96  
· 포천주민대표, 군수면담중 연행돼/95.10.20 1 508 / 99  
· 법원, 불법 수사 관행 쫓기 "영장 제시 않으면 불법"/95.12.13 1 546 / 192  
· 법원 "영장 유치장소 무시, 안기부 수사불법", 전창일씨 준항고 수용/95.12.16 1 549 / 198  
· 청와대 항의 방문 가던 노점상 1백여명 연행/96.1.6 1 557 / 220  
· 청년정보문화센터 회원, 선거법 위반 빌미로 불법 수사/96.3.9 2 598 / 309  
· 경찰, 피해자 진술 무시하고 불법노점상이라며 폭행/96.4.12 2 620 / 359

· 노점상연합회, 경찰 보복성 구속에 항의/96.4.23 2 627 / 373  
·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 제한, 나사청 회원 면회 불허/96.6.1 1 655 / 437  
·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 폭행, 경찰관은 신분·동행 장소 등 밝혀야/96.6.8 1 659 / 446  
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/96.6.8 1 659 / 446  
·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 행사 "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"/96.6.8 1 659 / 446  
· <자료>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, 즉심 피해자 구금은 불법/96.6.28 2 673 / 475

#### <안기부>

· 민변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규탄 성명/95.11.17 1 528 / 145  
· 안기부, '간첩' 진술만 앞세워 자백 강요/95.11.18 1 529 / 147  
· 안기부 여전히 고문, 박충렬·김태년씨 일주일째 잠 못 자/95.11.21 1 530 / 149  
· 전국연합등 안기부 시위, 고문 조작 중단 촉구/95.11.23 2 532 / 154  
· 법원 "영장 유치장소 무시 불법",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/95.12.16 1 549 / 198  
·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 중, 밀실 수사 합법화 우려/96.2.23 1 588 / 285  
· 안기부 법원 허가 무시하며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 금지/96.4.30 1 632 / 383

#### <이덕인 씨 사망 사건>

· 이덕인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/95.11.30 1 537 / 165  
· 이덕인씨 사인 규명 촉구, 노운협·KSCF성명/95.12.2 2 539 / 175  
· 이덕인씨 사인 규명 촉구, 사건일지 정리/95.12.6 2 541 / 180  
· 노점상 이덕인씨 타살? 비상대책위 의문 제기/95.12.12 2 545 / 190  
· 새정치국민회의 고이덕인씨 사인 조사/95.12.13 2 546 / 193  
· 이덕인 대책위, "민중탄압에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" 제안/95.12.15 1 548 / 196  
· 이덕인씨 사인진상조사위, 다시 타살 의혹 제기/96.1.9 1 558 / 222  
·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, 경찰에 의한 타살 가능성 주장/96.1.13 1 562 / 230  
· 이덕인씨 사망 49일 추모집회/96.1.17 1 564 / 234  
· 이덕인씨 비디오 제작/96.1.18 2 565 / 237  
· 이덕인대책위 담동성당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/96.1.23 1 568 / 242  
· 아암도 노점상 식발 단식 농성 5일째/96.1.26 1 571 / 248  
· 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하고 농성은 계속/96.2.2 1 576 / 261  
· 인천 남부경찰서, 고이덕인씨 유가족 2명 불구속 입건/96.3.2 1 593 / 297  
· 고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백일, 사인 규명 산 넘어 산/96.3.6 2 595 / 302  
· 고이덕인 1백일 추모집회/96.3.7 2 596 / 305  
· 이덕인씨 유가족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/96.3.30 1 613 / 339  
· 언론, 아암도 사건 외면에 이덕인 유족 항의/96.4.3 1 615 / 347  
· 이덕인씨 1백49일만에 묻혀/96.4.25 1 629 / 376

#### 6. 국가보안법

· 이부영 의원 5년 구형, 국보법 집시법등 결심/95.10.14 1 504 / 91  
· 전국연합, 김대통령 입장 반박, 국보법 철폐 주장 /95.10.18 1 506 / 95

- <지상중계>국보법(1) -적색공포 조장,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/95.11.2 2·3 517 / 122, 123
- <지상중계>국보법(2) -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/95.11.3 2·3 518 / 125, 126
- 이부영의원 의원직 상실, 국보법 실행 선고 상고 포기/95.11.4 1 519 / 127
- 경남도경, 창원대 총학생회장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/95.11.4 2 519 / 128
- 불고지죄란/95.11.10 1 523 / 135
- AI 보고서 발표, 다니엘스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 상황 개선 요구/95.11.25 2 534 / 159
-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,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/95.12.2 2 539 / 175
-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 조사 결과 58.5%/95.12.5 2 540 / 178
- 허인희씨 국보법 제10조(불고지죄) 위헌 제청 신청/95.12.21 1 552 / 204
- 유엔인권위 의사·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/96.1.19 1 566 / 238
- 전 연세춘추 편집장 수술 대기중 구속/96.2.2 1 576 / 261
- 민민학원 군복무자 5명 기무사 구속 확인/96.2.3 1 577 / 263
- 92년 남총련 의장 붙잡혀/96.3.27 1 610 / 332
- 국보법 피해자 명동성당서 농성/96.3.29 1 612 / 336
- 사민청 수배자 성세경씨 불심검문중 연행/96.4.23 2 627 / 373
- 단체협상중 정성철씨 등 국보법으로 구속/96.4.24 1 628 / 374
- '과거행적'에 칼날 세운 국보법,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·구속/96.4.25 1 629 / 376
- 경찰, 우상근씨 제3자개입 적용 안되자 국보법 적용으로 검거 전력/96.5.1 1 633 / 387
- '이적표현물 탐독' 전공 관련 무죄 선고/96.5.7 2 637 / 398
- 방북 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"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 하자는 것" 강변/96.6.14 1 663 / 454
-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해 남총련 최근 23명 구속/96.6.27 1 672 / 472
- 공안 탄압 우려 확산, 전남대 94년 학생회 간부 13명 긴급 구속/96.6.29 1 674 / 476

#### <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>

-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열어/95.10.19 1 507 / 97
-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/95.11.18 2 529 / 148
- 국가보안법 초국경적인 연대로 풀자, 국제심포지엄 오늘부터/95.11.22 2 531 / 152
-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/95.11.22 2 531 / 152
- 국보법은 불치병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,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/95.11.23 1 532 / 153
- <해방·분단 50주년 기념 인권 국제심포지엄>/95.11.24 2·3 533 / 156, 157
-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/95.11.25 2 534 / 159
- <자료>국보법 국제심포지엄-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/95.11.29 2·3 536 / 163, 164
- <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>/95.11.29 3 536 / 164
- <자료>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-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/95.11.30 3 537 / 167
- <자료>11월25일 발표 「국제앰네스티」 보고서/95.12.2 3 539 / 176
- <자료>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·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/95.12.8 3 543 / 186

#### <꽃다지>

- '꽃다지' 대표 구속에 항의해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/96.2.9 1 581 / 271
-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, 앰네스티 석방 촉구/96.2.10 2 582 / 274

- 꽃다지, '석방되는 그날까지' 거리 공연 계속/96.2.23 2 588 / 286
- 23일 꽃다지 대표 이은진·원용호씨 보석으로 석방/96.3.26 2 609 / 331
- 국가 안보 위협하는 노래, 꽃다지 징역 1년6월 선고/96.4.13 2 621 / 361
- 안기부, 법원 허가 무시하며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 금지/96.4.30 1 632 / 383

#### <나라사랑청년회>

- 서울·대구 지역 국보법 위반 혐의 12명 구속/96.5.30 1 653 / 431
- 서울청년단체 30일부터 나사청 구속자석방 농성/96.5.31 1 654 / 433
-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 제한, 나사청 회원 면회 불허/96.6.1 1 655 / 437
- 항의방문자 전원 연행, 나사청 불구속 7명/96.6.4 2 656 / 441

#### <박용길 장로 사건>

- 박용길장로 일시 석방,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/95.10.21 2 509 / 102
- 박용길장로 재판 무기 연기/95.10.26 1 512 / 107
-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/95.11.16 2 527 / 144
- 박용길 장로, 집행유예/95.12.1 1 538 / 171

#### <박창희 교수 사건>

- 박창희교수 "전형적 간첩" 검찰 무기징역 구형/95.10.12 1 502 / 85
- 박창희교수 징역 7년 선고, 학문 목적 접촉은 무죄/95.10.21 1 509 / 101
- 박창희교수 상고 기각, 국가 기밀 범위보호/96.6.18 2 665 / 459

#### <박충렬, 김태년 씨 사건>

- 부여간첩 접촉 혐의 구속, 박충렬·김태년씨 혐의 사실 강력부인/95.11.16 1 527 / 143
- 안기부 소설쓰나, 박충렬씨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돼 활동/95.11.22 1 531 / 151
- 앰네스티, 국보법 폐지 박충렬씨등 석방 요구/95.11.22 1 531 / 151
- 안기부 박충렬씨등 10일째 가족 면회 거부, 민가협등 항의 시위/95.11.25 2 534 / 159
- 안기부 김태년씨 무전기 발견 못해, 12일째 물증 없이 자백만 강요/95.11.28 2 535 / 161
- 안기부 박충렬씨 변호인 접견 불허/95.12.2 2 539 / 175
- "고문으로 허위자백" 박충렬씨 변호인에 밝혀, 김태년씨 접견거부/95.12.5 1 540 / 177
- 안기부, 박충렬씨 의사 검진 거부/95.12.6 2 541 / 180
- 박충렬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,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/95.12.8 1 543 / 184
- 김태년씨 석방 탄원 운동/95.12.19 1 550 / 200
- 박충렬씨 고문 상처 증거 보전 절차 밝혀/95.12.20 2 551 / 203
- 검찰 박충렬·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/96.1.9 1 558 / 222
- <자료>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/96.1.9 2 558 / 223
- <해설>박충렬·김태년씨 고무찬양등 혐의 기소 의미/96.1.10 2 559 / 225
- <박충렬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> /96.1.12 2 561 / 229
- 사상 형성 과정 파헤친다며 조성욱 검사 집요한 공세, 박충렬씨 공판/96.1.31 1 574 / 254
- 김태년씨 재판 연기/96.2.2 1 576 / 261



- 박충렬씨 3차공판서 검찰, 연방제 주장은 북한의 사주라고 주장/96.3.9 1 598 / 308
- 성남미래 대표 김태년씨 보석 석방/96.3.19 2 604 / 320
- 김태년씨 재판 연기/96.3.23 2 608 / 328
- 박충렬씨 결심 재판서 검찰 '간첩조작'실패에 악의적 구형/96.3.26 1 609 / 330
-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, 박충렬씨 보석 결정으로 4인 출감/96.4.6 1 617 / 352
-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 행사 "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"/96.6.8 1 659 / 447
- "전국연합 자료집 제작·배포, 이적성 있다", 박충렬씨 징역 10년 구형/96.6.22 1 669 / 466

<사노맹 재건 혐의>

-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/96.2.6 1 578 / 265
-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/96.2.7 2 579 / 268
- 서울시경, 사노맹 구속자에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/96.2.10 1 582 / 273
- 사노맹사건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하라 준항고 결정/96.2.13 2 583 / 276
- 사노맹 관련해 임산부 또 연행/96.3.16 1 603 / 318
- 과거 활동 문제 삼아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/96.3.20 2 605 / 332
- 사노맹관련 첫 공판, 검찰 4년전 활동으로 기소/96.4.25 2 629 / 377
- 합법 출판도 국보 적용, 사노맹 징역5년 구형/96.5.4 2 636 / 396
- 과거 행적에 낙인, 사노맹 무조건 유죄/96.5.9 2 639 / 403
- 서울·대구 지역 국보법 위반 혐의 12명 구속/96.5.30 1 653 / 431
- 안부 편지 '통신'으로 깨닫추기, 2·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/96.6.4 1 656 / 440
- 사노맹 구속자들 전원 석방 '사노맹은 와해된 조직'/96.6.13 1 662 / 452

<사회주의학생연합>

- 경찰, 사학련 16명 연행/96.3.30 1 613 / 339

<서울대 노나매기>

- 서울시경,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/96.2.28 1 591 / 291
- 노나매기 집유 판결/96.5.16 2 644 / 413

<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>

- 경찰 전 전대협 간부등 3명 국보법상 불고지혐의로 긴급 구속/95.11.7 1 520 / 129
- 청년단체들 철야 농성, 불고지죄 구속 정치 공작/95.11.8 1 521 / 131
- 허인회씨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 긴급 구속/95.11.9 2 522 / 134
-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 인지 강력부인/95.11.10 1 523 / 135
-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씨 석방, 허인회씨 구속영장/95.11.11 2 524 / 138
- 청년단체, 불고지죄 구속자 석방 촉구 규탄 집회/95.11.15 1 526 / 141
- 허인회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/95.11.17 1 528 / 145
- <자료>김동식씨 진술과 허인회씨 알리바이 비교/95.11.17 2 528 / 146
- 허인회씨 구속적부심 기각/95.11.18 2 529 / 148
-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,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/95.11.23 2 532 / 154

- 전국연합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, '간첩'사건 조작 의혹 나서/95.12.1 1 538 / 171
-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, 안기부 항의 방문/95.12.6 2 541 / 180
- 이인영씨 구속 정지, 허인회씨 8일째 단식/95.12.6 2 541 / 180
- 26일 '간첩' 김동식 법정 증언/96.1.11 1 560 / 226
- 허인회씨 2차공판 부여간첩 김동식,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/96.1.27 1 572 / 250
- 허인회씨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/96.2.10 2 582 / 274
- 안기부의 간첩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회/96.2.14 2 584 / 278
- 사회 각계 대표 1백명 "간첩조작 중단"등 촉구/96.2.15 1 585 / 279
- 허인회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 "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"밝혀/96.3.16 1 603 / 318

<전국학생정치연합>

- '좌파 대청소' 작업 노골화, 정치·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/96.5.9 1 639 / 402
- 전학련 3명 추가 구속, 군복무자 연행 제보/96.5.11 1 641 / 406
- 전학련 2명 추가 확인/96.5.14 1 642 / 408
- 경찰, 이적단체 혐의로 전학련 22명 구속·수배/96.5.17 1 645 / 414
- AI, 전학련등 석방 촉구, 좌경척결 발언 파장 비난/96.6.1 1 655 / 437

<전국학생투쟁연합>

- '좌경소탕작전' 이번엔 전학투련,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/96.5.29 2 652 / 430

<전노운협>

- 노운협 의장등 긴급 구속, 홍계동 대공분실 조사/95.11.2 1 517 / 121
- 노운협, 3일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성명/95.11.4 2 519 / 128
- 노운협의장등 3명 집행유예로 석방/96.4.30 2 632 / 384

<조국통일범민족연합>

- 안기부·경찰,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29명 긴급 구속/95.11.30 1 537 / 165
- 범민련연행자 명단/95.11.30 3 537 / 167
- 범민련 강희남씨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 받아/95.12.5 1 540 / 177
- 영장 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, 범민련 구속 전창일씨 준항고장 제출/95.12.6 1 541 / 179
- 범민련사건 이천재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/95.12.21 2 552 / 205
-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/95.12.23 2 554 / 209
- <독자투고> 전창일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-위인영/96.1.11 2 560 / 227
- 범민련 등 민중운동탄압 대책기구 구성키로/96.1.11 2 560 / 227
- 범민련 구속자에게 엽서를/96.1.11 2 560 / 227
- 불교인권위, 범민련 구속 목사돕기 모금운동/96.1.23 2 568 / 243
-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, 범민련 전창일씨등 3명 첫공판 열려/96.3.9 1 598 / 308
- 강희남씨등 9명, 1차 재판서 "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"며 냉전논리 반박/96.3.14 2 601 / 315
- 국가 기밀 누설 어디까지? 범민련 2차공판/96.3.23 2 608 / 329
- 범민련 전창일씨 공판, 간첩 혐의 적용 무리 지적/96.4.13 2 621 / 361

- “문민정부에도 이런 일이!” 범민련 송수신 절단/96.4.25 2 629 / 377
- 일본 491개 단체, 범민련 구속자 석방 촉구 서명/96.5.1 1 633 / 387
- 전창일씨등 범민련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 제보자 증인 신청/96.5.4 1 636 / 395
- <자료>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(이상영 교수)/96.5.8 3 638 / 401
- 검찰, 범민련 중앙간부들에게 “불순세력 득세”이유 중형 구형/96.5.10 2 640 / 405
- 일본 범민련구원회 모금, 홍보 활동 벌여/96.5.14 1 642 / 408
-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“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”/96.5.23 1 649 / 422
-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, 구속 통일인사 무죄 석방 요구/96.5.25 2 650 / 426
- 재판부 국보법 필요하다며 범민련 관련자들 실형 선고/96.5.28 2 651 / 428
- 범민련 씨말리기, 강순정씨등 2명 연행/96.6.7 2 658 / 445

<고애순 씨 사건>→<행형>

<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>

-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/95.10.25 1 511 / 105
-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 내용/95.10.25 2 511 / 106
- 하이텔에 올라온 ‘간첩 의혹’ 발언, “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”/95.10.28 2 514 / 112
- 대법원 ‘조작간첩 신귀영사건’ 재심 결정한 원심 파기/95.11.14 1 525 / 139
-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 파기에 대한 천주교인권위 입장/95.11.15 1 526 / 141
- 안기부 ‘간첩’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/95.12.9 1 544 / 187
- 조작간첩대책위, 소식지 배포중/95.12.20 2 551 / 203

<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사건>

- 경기도경, 애국동맹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/95.11.18 2 529 / 148
-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, 국보법상 이적 단체 구성 혐의/95.12.7 2 542 / 183

<중부지역당 재건 사건>

- 강원도경 9명 긴급 구속, 중부지역당 재건 혐의/96.1.10 1 559 / 224
- 중부지역당 재건 구속자들 혐의 부인/96.1.11 1 560 / 226
-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사건, 검찰 무혐의 석방/96.1.12 1 561 / 228

<진보정치연합>

- 수배 장진성씨 구속, 진보련 13명 긴급 구속/95.11.22 1 531 / 151
- 전남도경 영장재발부, 진보련 6명 구속/95.11.25 2 534 / 159
- 구속만기 직전 보석 허가, 광주 진정연 8명 풀러나/96.5.25 1 650 / 425

<충남대 자주대오 사건>

-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, 구금 장소 안 밝혀져/95.10.19 1 507 / 97
- 충남대 자주대오사건 대공분실과 기무사에서 조사중/95.10.20 1 508 / 99
- 충남대 자주대오사건 구속자가족 조작 주장/95.10.24 1 510 / 103

<한국노동청년연대>

- ‘과거 행적’에 칼날 세운 국보법,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·구속/96.4.25 1 629 / 376
- 청년연대, 24일 연행에 대해 항의/96.4.26 2 630 / 379
- 청년연대 10명 구속, 항의 방문자 집행유예 1년/96.4.27 2 631 / 382
- “또다른 공안사건이다” 청년연대 기자회견/96.4.30 2 632 / 384

<한국사회의 이해 사건>

-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,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/96.1.27 2 572 / 251

7. 국제

- 나이지리아 인권·환경운동가 9명 사형 집행, 한국단체들 강력 항의/95.11.14 1 525 / 139
- 외무부, 나이지리아 사형 집행 유감 표명/95.11.21 2 530 / 150
- SOS Torture 긴급요청, 파키스탄·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/95.12.8 2 543 / 185
- 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 자행,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 중지 촉구/95.12.15 2 548 / 197
- <필리핀 전 상원 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>/96.2.28 2 591 / 292
- 중국으로부터 자유·독립 선포한 3월10일 제38주년 티벳의 날/96.3.12 2 599 / 311
- 브라질 경찰, 무소유농민 학살/96.5.14 1 642 / 408
- 시민연대, ‘인권과 평화’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이/96.5.18 1 646 / 416
- 재일동포·동티모르·독일의 인권 문제/96.5.18 2 646 / 417
- 아시아 인권 운동가 서울 방문/96.5.22 1 648 / 420

<국제엠네스티>

- 국보법 인권 탄압 개정 강력 촉구 엠네스티 보고서 발표/95.11.25 2 534 / 159
- <자료> AI 보고서 국보법 개정, 피해자 구제 조치 등 권고/95.12.2 3 539 / 176
- 엠네스티 영국 지부, 홍성담씨 판화 담긴 고문책자 반간 예정/96.1.17 2 564 / 235
- AI, 총선에 ‘인권 공약’ 포함 촉구하는 공개 서한 보내/96.3.7 1 596 / 304
- AI의 공약 촉구 서한에 대해 여야 정당들 대부분 “모른다”/96.3.13 2 600 / 313
- AI, 양규현씨등 석방 촉구와 노동법 개정 요구/96.4.18 1 624 / 366
- AI, 웨이씨 석방 캠페인/96.5.30 2 653 / 432
- AI, 전학련등 석방 촉구, 좌경척결발언 파장 비난/96.6.1 1 655 / 437
- AI,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/96.6.13 1 662 / 452
- 제3차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, 노동법 개정 재촉구/96.6.25 1 670 / 468

<동티모르>

- <인터뷰>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조세 라모스씨/95.12.7 2 542 / 183
- 동티모르독립저항평의회 칼로스 마리아씨 방한/96.5.2 3 634 / 392
- 재일동포·동티모르·독일의 인권 문제/96.5.18 2 646 / 417

<미국무부 인권 보고서>

-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 보고서-남한편①/96.3.29 2·3 612 / 337, 338

-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 보고서-남한편/96.4.3 2 615 / 348
-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 보고서-북한편/96.4.6 2 617 / 353
- 인권활동가·전문가들,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비판/96.4.13 1 621 / 360

#### <재일동포/우토로 마을>

- 재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/96.2.28 1 591 / 291
-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 운동 전개/96.2.29 2 592 / 294
- 재일동포·동티모르·독일의 인권 문제/96.5.18 2 646 / 417
- 우토로마을 한인강제징용자들에게 일본대기업 퇴거 통보/96.5.8 2 638 / 400
-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 집회, 인권협등 지지 성명과 대표단 파견/96.5.28 2 651 / 428
- 우토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인터뷰/96.5.29 2 652 / 430

#### <유엔>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/95.12.2 1 539 / 174
- 유엔 아동권리위원회,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/96.2.1 1 575 / 259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한국 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 예정/96.3.5 2 594 / 301

#### <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>

- 유엔 의사·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, 국보법 철폐 권고/96.1.19 1 566 / 238
- <자료>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일본 중군위안부 보고서/96.2.8 2 580 / 270
- 국보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,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/96.3.20 1 605 / 322
- <자료>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/96.3.21 1 606 / 324
- 제네바 소식①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/96.3.28 2 611 / 335
- 제네바 소식②-개발권,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/96.4.4 2 616 / 351
-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, 국보법 폐지 권고/96.4.12 1 620 / 358
- 유엔 인권위 한국 정부 대표 발언 내용/96.4.12 2 620 / 359
- 제네바 소식 ③-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터뷰/96.4.18 2 624 / 367
- 제네바 소식 ④ -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, 고문·실종문제 등 논의 활발/96.4.25 3 629 / 378
- 유엔인권위 폐막, 97년 선주민문제 공식 의제로/96.4.30 1 632 / 383

### 8. 노동

- 아시아위치 국제 기준 준수 촉구,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강경 비난/95.11.10 2 523 / 136
-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/95.12.23 1 554 / 208
- 무노동 무임금 철폐 촉구, 전국연합등 대법 판결 비난/95.12.23 1 554 / 208
-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/96.3.7 2 596 / 305
-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/96.3.7 2 596 / 305
- 민주금속연맹, 13·14일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 투쟁/96.3.14 1 601 / 314
- 2일부터 4일까지 한라중공업 노조 본사 앞 상경 투쟁/96.4.2 2 614 / 345
- 단병호씨 4월 혁명상 수상/96.4.19 2 625 / 369
- 태광산업 단체협상중 정성철씨 등 국보법으로 구속/96.4.24 1 628 / 374

- 96년 임단투 본격화, 7개 노조 파업과 대한보증보험 쟁의 신청/96.4.24 2 628 / 375
- 건설증권 1백50일 파업 끝 타결, 조합원 단결력·자신감 성과로/96.4.27 1 631 / 381
-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/96.5.1 1 633 / 387
- <현장스케치-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 공원>/96.5.2 3 634 / 392
-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/96.5.22 1 648 / 420
- 한국산본사대 '자본 철수 위한 사전 정지 작업'/96.5.23 2 649 / 423
- 금호타이어 노조 활동 위축 위해 회사측 20억 손해소송/96.6.5 2 657 / 443
- 현중, 쟁의 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/96.6.7 2 658 / 445
- 언론, 만도 파업 쟁점 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리/96.6.20 1 667 / 462
- 마이크로전자 노조 지키기 위한 총투쟁 전개/96.6.26 2 671 / 471
- 28일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소식/96.6.27 1 672 / 472

#### <개인휴대통신사업/PCS>

-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,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/96.4.18 1 624 / 366
- PCS범국민대책위 공개 토론회 개최/96.4.24 1 628 / 347
- PCS범국민대책위 전국집회/96.6.5 2 657 / 443
- PCS범대위 무한 농성, 정보통신특별법 위해 국회 청원/96.6.8 2 659 / 447
-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 항의 "통신주권, 재벌에게 줄 수 없다"/96.6.12 1 661 / 450
- PCS범대위 정통부·LG 앞 시위/96.6.13 1 662 / 452

#### <공공부문노조>

- 한통 노조 무기한 단식, 회사 농성장 폭력 침탈/95.10.27 2 513 / 110
-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, 김정권 3년동안 162명 해고/96.3.16 2 603 / 319
- 한국통신등 공공노조, 무기한 농성 정보통신부·신한국당 항의 방문/96.3.21 1 606 / 324
- 공공부문 노동자 구속에 항의해 공노대 신한국당사 항의 방문/96.3.22 2 607 / 327
-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/96.3.26 2 609 / 331
-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, 해고자복직·단결권 보장 요구/96.6.1 1 655 / 437
- 공노대 대표단, OECD방문/96.6.5 2 657 / 443
- 공공부문노조, 쟁의 발생 신고/96.6.5 2 657 / 443
- 한국통신 오용철씨 간담으로 18일 별세/96.6.22 1 669 / 466

#### <국제노동기구>

- 민주노총, 정부 제소 ILO 87호 조약 위반/95.12.21 1 552 / 204
- ILO, 한국 정부에 민주노총 합법화·제3자개입 금지 등 철폐 권고/96.6.26 1 671 / 470
- 결사의 자유위원회란?/96.6.26 2 671 / 470
- <자료>-ILO '결사의 자유 위원회'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/96.6.27 2 672 / 473

#### <근로자파견제>

- 민교협, 근로자파견제 철폐 촉구 성명/95.10.24 1 510 / 103
- 민주노총(준), 근로자파견법 입법 저지 철야 농성 돌입키로/95.10.25 2 511 / 106

- 민주노총(준) 공청회, 근로자파견제 '현대판 노예 노동' 합법화/95.10.26 1 512 / 107
-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 사업/95.10.27 2 513 / 110
- 민주노총 비상 결의 대회 근로자파견법 반대 노태우씨 구속 촉구/95.11.2 1 517 / 121
- 민자당, 파견법 유보 발표 민노총 전면 철회 요구/95.11.3 1 518 / 124

#### <노사관계개혁위>

- 노동계, '신노사관계'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/96.4.26 1 630 / 379
- 노사개혁위에 우려반, 기대 반/96.5.11 2 641 / 407
- 민주노총, 현승종씨 노동자 천시 발언에 사과 요구 성명/96.5.17 2 645 / 415
- 민주노총, 노사관계 개혁 정책 세미나/96.5.18 2 646 / 417
- 민주노총소속 노조, 20일 연대파업 결의/96.6.19 1 666 / 460

#### <민주노총>

- 민주노총(준)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, 명동성당 농성 돌입/95.11.8 1 521 / 131
-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, 민주노총 11일 창립 대회 준비 완료/95.11.9 1 522 / 133
- 시민사회단체,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성명/95.11.10 2 523 / 136
- 오늘 민주노총 출범, 내일 여의도 노동자대회서 국제연대운동 다짐/95.11.11 1 524 / 137
- 시민사회단체,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/95.11.11 1 524 / 137
- <자료>-민주노총 창립선언문/95.11.15 2 526 / 142
-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,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/95.12.1 1 538 / 171
- 민주노총 설명회 가져/95.12.15 2 548 / 197
- 민주노총, 정부 제소 II.O 87호 조약 위반/95.12.21 1 552 / 204
- 대법원 "무노동 무임금" 판결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준 판례 뒤집어/95.12.22 1 553 / 206
- 민주노총,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/96.1.24 1 569 / 244
- 민주노총,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/96.1.25 2 570 / 247
- 법학교수 72명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/96.1.30 1 573 / 252
-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남용 말라, 법학 교수 72명 의견서 발표/96.1.31 1 574 / 254
- <자료> 법학 교수들의 의견(요약)-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/96.2.1 2 575 / 260
-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, 한국노총 반성·개혁돼야/96.2.9 2 581 / 272
- 민주노총 구속자 35명, 수배자 13명등 사면대상 파악 발표/96.2.9 2 581 / 272
-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/96.2.14 2 584 / 278
- 간암 투병 유구영씨 후원의 밤/96.2.15 2 585 / 280
-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 토론회/96.2.29 2 592 / 294
- 민주노총-장대협 자매결연 맺어,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%수준 요구/96.4.17 2 623 / 365
- 106주년 노동절 기념,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/96.5.2 1 634 / 390
- 노동운동가 유구영씨 2일 별세 "동지와 민중에 대한 사랑, 건강" 당부/96.5.3 2 635 / 394
- 민주노총,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 요구/96.5.9 2 639 / 403
- 민주노총 소속 1백8개 노조 입단협 타결, 사회적 책무조항 요구/96.6.18 1 665 / 458
- "해고자복지·입단협 논의하자" 민주노총, 경총에 공식대화 제의/96.6.25 2 670 / 469

#### <박무영 씨 사건>

- <독자투고>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/96.2.3 2 577 / 264
-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관련 박무영씨 홍콩 경찰서에 기소/96.3.19 1 604 / 320
-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씨 7월 재판 재개/96.3.22 1 607 / 326
- 14개 사회·시민단체 홍콩 정부에 박무영씨등 기소취소 요청서한 발송/96.3.27 2 610 / 333
- <자료>홍콩 정부,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/96.3.27 2 610 / 333
- 박무영씨사건 항의 서한에 대해 홍콩 정부 공정 재판 약속 답변/96.4.2 2 614 / 346

#### <사회개혁운동>

- 4인 가구 표준생계비 2백35만9천9백30원, 민주노총 조사·발표/96.1.16 1 563 / 232
- <자료>민주노총 발표 표준생계비/96.1.18 2 565 / 237
- '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, 민노총·민교협 등 8개 단체/96.2.24 2 589 / 288
- 민주노총, 노동법 개정·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키로/96.3.20 2 605 / 323

#### <산업재해, 작업중지권>

- 대우조선 정월화씨, 회사 업무 과다로 자살/95.11.11 2 524 / 138
- 살인가스공장 폭발 사고 노동자 사망, 군산·옥구 주민들 이전 촉구/96.2.16 1 586 / 281
- 현대중공업 이틀에 1건 꼴로 중대재해 발생/96.2.24 1 589 / 287
- 솔벤트 중독 피해자들 중독 대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/96.3.6 2 595 / 303
- 삼호조선소 노동자 5명 사망, 3명 중상/96.3.23 2 608 / 329
- 현중 외주노동자 암착사/96.4.4 1 616 / 350
- 현중, 연이어 노동자 사망, 노동자 하루 6명 사망, 3백30명 부상/96.4.6 1 617 / 352
- 금속연맹, "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" 산재추방주간 선포/96.4.10 2 619 / 356
- 현중 올 들어 중대재해 사망 7명, 안전시설 설치 시급/96.4.16 1 622 / 362
- 현중, 가스폭발로 1명 사망, 20일동안 4명 죽어/96.4.20 2 626 / 371
- 현중, 산업안전은 뒷전, 노조간부 고소/96.5.8 1 638 / 399
- 현중, 계속된 노조 의견 외면한 채 산재 문제에 대대적으로 투자키로/96.5.15 2 643 / 411
- 부천 대흥기계, 노사 합의로 '작업중지권' 확보/96.5.16 1 644 / 412
- 경실련 등 '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' 촉구/96.6.29 1 674 / 476

#### <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난입 사건/ 김해성목사>

- 경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명 연행에 진경 5백명 출동/96.6.5 1 657 / 442
- 한교협, 김해성목사 석방 촉구 규탄 성명/96.6.5 2 657 / 443
-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공대위 결성/96.6.7 1 658 / 444
- 김해성목사 면담 요구 교인 구속/96.6.8 2 659 / 447
- 의노대 '보호법제정' 농성, 정부 계속 단속 밝혀/96.6.11 2 660 / 449
- 재독 교민 7단체 "김해성목사 석방하라"며 김대통령에게 항의 서한/96.6.15 1 664 / 456
- WCC, 법무부장관에 김해성목사 석방 촉구 항의 서한/96.6.25 2 670 / 469
- "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!" 경찰, 성남 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 해산/96.6.28 1 673 / 474

<여성노동자>

-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/95.10.11 1 501 / 81
-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/95.10.19 2 507 / 98
- 시민단체, 고용평등추진본부 발족 현장모니터 고발센터 운영/95.10.21 1 509 / 101
- 여성단체, 근로자파견법 반대 민자당사 항의 집회/95.11.1 1 516 / 119
-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 토론회, 신인력정책이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/96.5.1 1 633 / 387

<외국인노동자>

-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/95.10.26 1 512 / 107
- 귀향모임, 중국교포 산재 보상·체불 임금 신청/95.12.16 2 549 / 199
- 명동성당 농성 1년,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/96.1.9 1 558 / 222
-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, 외노협 설문조사 발표/96.1.10 1 559 / 224
- 노동부,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/96.1.19 1 566 / 238
- 외노협 기자회견,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/96.2.3 1 577 / 263
-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/96.4.27 2 631 / 382
-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산업연수생 증언 "월급 4만원"/96.6.14 1 663 / 454
- 아태회의, 외국인노동자 문제 논의 "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"/96.6.18 2 665 / 459
- 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/96.6.21 1 668 / 464
-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 조사/96.6.28 1 673 / 474

<원진레이온>

- 원진레이온 실직 노동자 공사장서 화상 입고 사망/96.1.18 1 565 / 236
- 3년째 원진레이온 약속 불이행으로 자격증 취득한 54명만 재취업/96.4.23 1 627 / 372
- 원진레이온, 기능사 자격증 따면 무조건 취업은 거짓말/96.5.11 1 641 / 406

<제3자개입금지>

- <손종규씨 손해소송 관련 자료>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해소송/95.10.26 2 512 / 108
- 권영길 민주노총 의장 불잡혀, 민노총 방배경찰서 앞 석방 요구 농성/95.11.24 1 533 / 155
- 호주 노조들 권영길위원장 구속 항의집회/95.12.12 1 545 / 189
-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,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/96.1.12 1 561 / 228
-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/96.1.19 1 566 / 238
- 권영길 위원장 검찰 심문 거부, "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"/96.1.27 2 572 / 251
- <자료> 법학 교수들의 의견(요약)-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/96.2.1 2 575 / 260
- 또 "제3자 개입", 양규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행/96.2.2 1 576 / 261
- 재야대표·앰네스티,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서한 정부에 전달/96.2.8 2 580 / 270
-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, 3차공판 "불법 파업 선동한 죄 없다"/96.2.10 2 582 / 274
-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/96.2.28 1 591 / 291
- 국제자유노련 조사단, 노동 실태 조사차 방한/96.3.13 1 600 / 312
- 박시환판사 권영길위원장 보석 결정/96.3.14 1 601 / 314
- 양규현씨 재판 연기/96.3.21 1 606 / 324

- 권영길씨 5차공판 증인신문서 근로감독관 "노동법 잘 모른다"/96.3.27 1 610 / 332
- 양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, 검찰 신문 거부/96.3.30 1 613 / 339
- AI, 양규현씨등 석방 촉구와 노동법 개정 요구/96.4.18 1 624 / 366
- 금속연맹 노사 간담회, 사업장 대표 불참/96.4.25 2 629 / 377
- 경찰, 우상근씨 제3자개입 적용 안되자 국보법 적용으로 검거 전력/96.5.1 1 633 / 387
-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해 AI, 노동법 개정 재촉구/96.6.25 1 670 / 468
- 법원 검찰 항고 기각,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/96.6.28 2 673 / 475

<조수원/ 병역특례 해고자>

-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문제 해결 촉구/95.10.27 2 513 / 110
- <특별기고1>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문제 빨리 해결돼야-박종석/95.11.8 2 521 / 132
- <특별기고2>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 기미 안보여-박종석/95.11.9 2 522 / 134
-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, 국회 청원 심사 긍정 반응/95.12.7 1 542 / 182
-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, 조수원씨 4년6개월 수배 끝에/95.12.16 1 549 / 198
- 고 조수원씨 사망 이후 해고자문제 전면 부상/95.12.19 1 550 / 200
-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씨의 글/95.12.19 2 550 / 201
- 민주노총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, 조수원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/95.12.21 2 552 / 205
- 조수원씨 추모 대회 23일 서울역 광장 예정/95.12.23 1 554 / 208
-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했으나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/95.12.27 1 555 / 210
-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, 조수원씨 노동자장으로/96.1.5 1 556 / 217
- 경찰 조수원씨 장례 행사 원천 봉쇄/96.1.6 1 557 / 220
- 고 조수원씨 죽음에서 장례까지/96.1.6 1 557 / 220
- 조수원추모사업회 30일 창립, 발기인 모집/96.4.23 1 627 / 372

<해고노동자/전해투>

- 민주노총(준), 경찰청 수배자 검거령 강력 비난/95.10.19 1 507 / 97
- 해고자지원대책위, LG그룹 해고자 복직 외면, 복직 촉구서 전달/95.11.15 2 526 / 142
- 민주노총 구속자 35명, 수배자 13명등 사면 대상 파악 발표/96.2.9 2 581 / 272
- 한국통신등 공공 기관 해고노동자, 명동성당 농성/96.3.16 2 603 / 319
- 삼미특수강(주), 해고자 복직·손해소송 취하등 노조와 합의/96.4.17 1 623 / 364
-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/96.4.30 2 632 / 384
- LG그룹 해고자노동자, 본사 건물에 계란 던지며 복직 촉구/96.5.2 1 634 / 390
- LG그룹 해고노동자 집회 계속/96.5.10 2 640 / 405
-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/96.5.22 1 648 / 420
- 기아노동자 복직 투쟁, 집단 폭행으로 3명 입원/96.6.4 1 656 / 440
- 해고자복직 전해투·공해투 무기한 명동 농성 돌입/96.6.11 1 660 / 448
- LG해고자 돕던 이웃 주민 고소/96.6.11 1 660 / 448
- 해고자복직·민주적 노사 개혁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 돌입/96.6.15 2 664 / 457
- 민변, 해고자 복직 촉구 성명/96.6.18 2 665 / 459

<한국합섬>

- 한국합섬노조 고공 농성, 상경 투쟁 전개/96.4.26 1 630 / 379
- 노조 간부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/96.5.7 1 637 / 397
- 분신한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/96.5.7 1 637 / 397
- '좌파 대청소' 작업 노골화, 정치·학생 조직 및 노동 진영까지/96.5.9 1 639 / 402
- 민주노총등 23개 단체, 한국합섬사태 강경 대응키로/96.5.30 1 640 / 431
- 한국합섬 노·사 협상 제기, 협상 결과에 따라 텐트농성등 집회 전개/96.5.14 1 642 / 408
- 한국합섬, 고소·고발취하등 잠정 합의/96.5.15 1 643 / 410
- 한국합섬 사태, 정부책임자 처벌·구속노동자 석방 필요/96.5.17 2 645 / 415

<한전노조/김시자>

-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김시자씨 분신·사망/96.1.16 1 563 / 232
- 분신·사망한 김시자씨 유언/96.1.16 1 563 / 232
- 분신 김시자씨 한전 본부 노사 방해로 장례 어려움/96.1.17 2 564 / 235
-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, 분신대책위원장·유가족등 연행/96.1.20 1 567 / 240
- 전국연합·불교인권위 성명,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/96.1.20 1 567 / 240
- 고 김시자씨 가족이 화장,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 결성/96.1.23 2 568 / 243
- 고 김시자위원장 분신 원인-노조 전임자 축소등이 문제/96.1.24 2 569 / 245
- 김시자씨 추모 집회 노조 민주화 다짐/96.1.30 1 573 / 252
- 여연, 한전 노사에 노조위원장 사퇴 등 촉구 항의 서한/96.2.8 2 580 / 270

9. 노인

- 참여연대, 노령 수당 지급 소송/96.4.13 2 621 / 361
- <자료>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제의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요지/96.4.16 2 622 / 365

10. 농민

- 12일 최종진 후원기도회 "농민운동의 희망을 살립니다"/96.5.9 1 639 / 402
- 전여농,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/96.5.29 2 652 / 430
- <농민운동가 최종진> 20년 농민운동에 헌신, "계획은 있다"/96.6.14 2 663 / 455

11. 미군범죄

- 충무로 폭행 미군 첫 공판/95.10.13 1 503 / 89
-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, 더그망언 항의 성명/95.10.20 1 508 / 99
- 충무로 미군 난동 사건 피해자 조정국씨, 애국시민상 수상/95.10.28 2 514 / 112
- 경찰, 동두천 주민 폭행 미군 의례적인 조사만/95.11.21 2 530 / 150
- 서울지법, 충무로 지하철 폭행 사건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/95.12.22 2 553 / 207
- 동두천 이영직씨 배상 결정 무시 미군 측에 항의/96.1.5 1 556 / 217
- 이영직씨 농성 풀어,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/96.1.17 2 564 / 235
- '예견된 산불 사고' 미군 공개 사과 촉구/96.4.27 1 631 / 381
- 동두천 산불 참사에 미군측 배짱, 위로금 "60만원만 먹어라"/96.5.4 2 636 / 396

<공여지>

- 공여지문제로 떠오른 쇠목 마을 실태 "내땅 사용도 미군 허가 받아야"/96.5.3 2 635 / 394
- 미군공여지 반환'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 마을 투쟁, 전국적 확산 기미/96.5.4 1 636 / 395

<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>

-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, 더그망언 항의 성명/95.10.20 1 508 / 99
- 충무로 미군 난동 사건 피해자 조정국씨, 애국시민상 수상/95.10.28 2 514 / 112
-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,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/95.12.8 1 543 / 184
-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/96.1.17 2 564 / 235
-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, 미대사관에 한미행협 재정요구 서한 전달/96.3.15 2 602 / 316
-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, 한미행협 개정 요구하며 외무부앞 시위/96.3.23 1 608 / 328
-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등 활동한 박순금 장로 운명/96.6.18 1 665 / 458

<한미행협>

-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,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/95.12.8 1 543 / 184
-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/95.12.8 2 543 / 185
-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 난항 예상, 미국측 수행 시설 낙후등 지적/96.1.13 1 562 / 230
-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/96.1.17 2 564 / 235
- 클린턴방한 맞아 한미행협 개정 촉구하는 항의 시위/96.4.17 2 623 / 365

12. 북한

- 우성호 선원 귀환 환영, 재야 남북 대화 재개 기대/95.12.27 2 555 / 211
- <자료> 미국무부 95년 인권 보고서-북한편/96.4.6 2 617 / 352

<북한수재>

- 여연·불교인권위, 북한수재동포 성금 전달/95.11.21 2 530 / 150
- 전국연합, 29일부터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/96.1.25 2 570 / 247
- 전국연합, 1억 목표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/96.1.30 1 573 / 252
- <자료> 북한수재동포돕기 성명서-상부상조 미풍 계승/96.1.30 2 573 / 253
- 전국연합, 대북 지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정부 촉구/96.2.1 2 575 / 260
- <자료> 마카오 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/96.2.6 2 578 / 266
- 전국연합, 정부에 북한 돕기 서한 전달/96.2.8 1 580 / 269
- 전국연합, 북한 수해동포 캠페인/96.2.16 2 586 / 282
- 전국연합, "정부 창구일원화로 전달 지연"/96.5.21 1 647 / 418
- "쌀 지원 허용하라" 전국연합 민간 허용 촉구/96.6.1 1 655 / 437
- 의료인, 유니세프 통해 북한수재민돕기 성금/96.6.18 1 665 / 458

13. 사법

- 쇠파이프 구속 학생 구속적부심서 석방/95.10.11 1 501 / 81

- 대전고법,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 처분 취소 청구 각하/95.10.18 2 506 / 96
- 시민 권리 헌장 선포,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/95.10.28 2 514 / 112
- 김귀정씨 사망 국가 배상, 대법원 원심으로 확정/95.11.11 2 524 / 138
- <해설>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 파기로 본 재심 제도/95.11.16 2 527 / 144
- 법원, 불법 수사 관행 쟁기 "영장 제시 않으면 불법"/95.12.13 1 546 / 192
- <자료> 노태훈씨 사건 판결문 요지-영장 없는 연행, 압수 수색은 불법/95.12.14 2 547 / 195
- 법원,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'영장유치 장소무시' 불법관행에 제동/95.12.16 1 549 / 198
- 대법원 "무노동 무임금" 판결로 징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/95.12.22 1 553 / 206
- 서울지법, 충무로 지하철 폭행 사건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/95.12.22 2 553 / 207
- 전주지법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, 7일 이내 신고의무 불이행/95.12.27 1 555 / 210
- 박종철씨 유가족 손해소송 대법원 원심 확정/95.1.5 1 556 / 217
- 서울지법, 경찰 불법 주거 침입 배상하라 판결/96.1.6 1 557 / 220
- <자료>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해소송 대법원 판결문/96.1.6 2 557 / 221
- <자료> 박종철 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- 변호인 접견 관련/96.1.9 2 558 / 223
- 대법원,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/96.1.26 1 571 / 248
- 서울고법,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/96.2.7 1 579 / 267
- 사노맹사건 '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하라' 준항고 결정/96.2.13 2 583 / 276
- 증거 불충분 살인 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/96.2.22 2 587 / 284
- <자료> 김선명 씨 보안 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 요약/96.2.28 2 591 / 292
- 서울지법, 국보법 19조(구속기간 영장) 위헌 제청/96.3.7 1 596 / 304
- 당직변호사제 3주년,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 가능케/96.4.27 1 631 / 381
- '이적표현물 탐독' 진공 관련 무죄 선고/96.5.7 2 637 / 398
- <자료> 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등 무죄 판결/96.5.14 2 642 / 409
- <자료>-대법원 결정문 "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"/96.6.7 2 658 / 445
- 살인 누명 쓰고 13개월 동안 옥살이한 김기웅 순경/96.6.12 2 661 / 451
- <자료> 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, 즉심피해자 구금은 불법/96.6.28 2 673 / 475

#### 14. 사회보장

- <자료> 통계청 발표, 95년 한국의 사회 지표/96.1.26 2 571 / 249
- 참여연대,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재원마련등 없다고 공약 평가/96.3.28 1 611 / 334

#### 15. 양심수·장기수

- 대전고법,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 처분 취소 청구 각하/95.10.18 2 506 / 96
- 북한, 비전향 장기수 복송 논의 판문점 회담 환영/95.10.31 1 515 / 113
- 원주지역 단체들, 홍중희씨 이감 서명 운동 전개/95.11.8 2 521 / 132
- 불교인권위, 장기수 송환 논의 제안/95.11.15 1 526 / 141
- 일본양심수후원단체들, APEC기간 동안 양심수 석방 단식 농성 /95.11.16 1 527 / 143
- 일본 한국정치범단체들, 양심수 석방 호소/95.11.25 2 534 / 159
-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 배상 기각,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/95.12.7 1 542 / 182
-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/95.12.9 1 544 / 187

- 장기수 복송 회담 제안, 불교인권위 내년 1월/95.12.13 2 546 / 193
-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, 천주교인권위 논평/95.12.23 2 554 / 209
- 추운 겨울 장기수들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다/95.12.23 2 554 / 209
- 고난모임, 장기수 자녀에 장학금 전달/96.1.19 2 566 / 239
-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/96.1.24 1 569 / 244
- <자료> 유현석변호사의 「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」에서-국방경비법/96.1.24 2 569 / 245
- 장기수 복송 회담 불허,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/96.2.1 1 575 / 259
- 불교인권위, 19일 판문점서 장기수 복송 회담 재 추진/96.2.8 2 580 / 270
- 한교협 대통령에 석방 탄원,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/96.2.15 2 585 / 280
-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, 양심수 1명도 없어/96.2.24 2 589 / 288
- 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, 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/96.2.27 1 590 / 289
- 민가협,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/96.3.23 1 608 / 328
- 불교인권위, 4월19일 장기수 송환 회담 재 추진/96.3.27 1 610 / 332
- 광주교도소 김동기씨등 장기수 2명 단식 농성/96.4.19 2 625 / 369
- 4월혁명의 산 증인 문한영씨 별세, 21일 벽제에서 화장/96.4.20 1 626 / 370
- 함세환씨등 복송 추진 위한 판문점 회담 결렬/96.4.23 2 627 / 373
- 박노해씨 후원 모임 결성 "양심수 석방의 첫발"/96.5.8 2 638 / 400
- 양심수 석방 남북 공동 기도,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/96.5.17 2 645 / 415
-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/96.5.25 1 650 / 425
- 제일동포 장기수 이성우씨, 행정심판 제기/96.5.30 2 653 / 432
- 조작간첩 이성우씨 인터뷰 "내 자식들은 '한국이 무섭다'고 한다"/96.5.30 2 653 / 432
- 함세환씨 등 전쟁 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/96.6.25 1 670 / 469
- <3명 포로의 삶> "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"/96.6.25 1 670 / 468

#### 16. 어린이·청소년

- 5세아연대회의, 5세아 입학은 아동에게 부담만/95.10.20 1 508 / 99
-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정부의 민간보육정책 비판/95.11.23 2 532 / 154
- <자료> 아동권연대회의 주요 권고 요청 사항/95.12.6 3 541 / 181
- 아동학대에방협회,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/95.12.20 2 551 / 203
- 유엔 어린이권리조약 정부 최초보고서 심의/96.1.23 1 568 / 242
- 유엔 아동권위원회,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/96.2.1 1 575 / 259
- <자료>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 결론적 의견/96.2.2 2 576 / 262
- 정부, '어린이·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' 결성 안돼/96.2.10 1 582 / 273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 예정/96.3.5 2 594 / 301
- 공동육아연구원 27일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/96.5.16 1 644 / 412
- <자료> 95년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/96.5.31 2 654 / 434

#### 17. 언론

- 민언협, 문화일보 직장 폐쇄 철회 촉구/95.11.11 2 524 / 138

-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/96.1.6 2 557 / 221
- 전국연합·불교인권위 성명,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/96.1.30 1 573 / 252
- “사법부 감정적인 판결”,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/96.1.31 1 574 / 254
- 바른언론, 전 씨에 돈 받은 언론인 공개 촉구/96.2.7 1 579 / 267
- 문호근씨 ‘김정일 선물’기사에 언론중재 신청/96.2.27 1 590 / 289
- <현장 스케치-MBC 파업 6일째> 언론이 정권 시너 되어서는 안돼/96.3.19 2 604 / 321
- 민주노총등 강사장퇴진과 방송 독립 촉구 연대 집회/96.3.29 1 612 / 336
-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 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/96.4.3 3 615 / 347
- 민언협, 강성구사장 즉각 퇴진 성명서 발표/96.6.4 2 656 / 441

<시사뉴스사>

- 기무사, 주간 시사뉴스에 불법 압력 행사/96.5.10 1 640 / 404
- 시사뉴스, 가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/96.5.15 1 643 / 410
- 기무사·경찰,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씨 집중 추적/96.5.16 1 644 / 412
- ‘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’, 시사뉴스 제82호 인용/96.5.16 2 644 / 413
- ‘기무사비리, 법정에서 밝혀질까’ 기무사,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 신청/96.5.29 1 652 / 429
- 인권협 시사뉴스 탄압 중단 성명 발표/96.6.4 2 656 / 441
- 기무사, “제보자 알려주면 소송 취하”,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/96.6.7 1 658 / 444
- 시사뉴스사 “구속 수사 공평치 않다”며 석방 촉구/96.6.11 2 660 / 449
- 검찰,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 기재한 구속영장으로 구속/96.6.15 2 664 / 457
- 탄압에 언론 침묵, 시사뉴스사 유감 표명/96.6.29 1 674 / 476

18. 여성

- 여성단체,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민자당사 항의 집회/95.11.1 1 516 / 119
- 주민 스스로 의정 감시를,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대식/95.11.16 2 527 / 144
- 여성장애인들 모임, 스스로 빗장 열기 다짐/95.11.29 1 536 / 162
- 고교 입시 성차별, 고입 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/96.1.18 1 565 / 236
- 호봉체계 성차별,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/96.2.27 2 590 / 290
- 제12회 3·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회/96.3.8 1 597 / 306
- <토론회>김영삼정권 3년 여성정책 평가/96.3.16 2 603 / 318
- TV 3사 뉴스 모니터 결과, 뉴스 앵커 성차별 심각/96.4.19 2 625 / 369
-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, 신인력정책이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/96.5.1 1 633 / 387
- 현장 방문과 심포지엄 개최, 한국·베트남·중국의 여성운동가 참석/96.5.2 2 634 / 391
- 여성민우회 27일부터 예비 신랑·신부학교/96.5.15 1 643 / 410
- 전여농,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/96.5.29 2 652 / 430
- 딸들을 위한 캠프, 여성의 전화 개최/96.6.21 1 668 / 464
-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, 보수적 여성관 여전/96.6.26 2 671 / 471

<가정폭력>

- 여연, ‘가정폭력방지법 제정’등 10대 여성정책 발표/96.3.13 2 600 / 313

- 여성의 전화,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/96.3.15 1 602 / 316
- 구타여성, 법률 지원 절박 ‘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’/96.5.4 2 636 / 396
- 여성의전화 회원들, 이상희할머니 석방 촉구 시위/96.5.10 2 640 / 405
- 여연등 단체들 15일 ‘가정폭력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’ 구성/96.5.16 2 644 / 413
-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/96.5.17 2 645 / 415

<성폭력>

- 성폭력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/95.10.25 1 511 / 105
- 봉천동 성폭력피해자 전철순씨, 집행유예 선고/95.10.28 2 514 / 112
- 세계성폭력추방주간 맞아 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/95.11.23 2 532 / 154
-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, 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/95.11.29 1 536 / 162
- 성폭력 상담원 모집/96.2.22 2 587 / 284
- 성폭력상담소, ‘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’ 판결에 특별법 취지 위배주장/96.3.2 1 593 / 297
- 서울고법,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 선고/96.3.29 1 612 / 336
-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, 어린이 성폭력 78%, 주변사람 범행/96.5.31 1 654 / 433

<신양중 성폭행 사건>

- 교장 상습적으로 제자 성추행 전교조, 처벌과 대책 마련 요구/96.6.12 1 661 / 450
- 교육·인권단체 참여해 신양중공대위 결성/96.6.18 1 665 / 458
- 신양중 학생들 “성추행교장 퇴진” 한 목소리, 공대위 항의 방문/96.6.20 1 667 / 462
- 신양중 공대위, 성추행 황교장 고발/96.6.28 2 673 / 475

<일본군 위안부>

- 위안부 민간기금 모집 활용, 일본 자치노 홍보물 수거/95.10.21 2 509 / 102
- 수녀 1천6백여명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 평화 행진/95.12.6 2 541 / 108
- <현장스케치>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-국제적 문제로 등장/96.1.25 2 570 / 247
- 정대협,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-유엔보고서 계기로 일정부 배상압박/96.2.8 1 580 / 269
- <자료>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/96.2.8 2 580 / 270
- “유엔, 위안부 배상 나서야”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·일수상에 촉구서한/96.2.23 1 588 / 285
- 전국연합등 사회운동단체, 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 77주년 3·1절 기념식/96.3.5 2 594 / 301
- <인터뷰>여성운동상 수상-도즈카 변호사/96.3.8 2 597 / 307
-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필리핀서 28일 개막/96.3.26 2 609 / 331
- 정대협, 일본의 위안부 책임 회피 비난하여 배상 촉구/96.4.9 2 618 / 355
- 정대협,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/96.4.25 2 629 / 377
- 필리핀·대만등 일본측의 위안부 문제 회피에 항의/96.5.17 2 645 / 415
- 정대협, 아시아평화기금 중단 촉구와 일본의원 망인 규탄/96.6.7 1 658 / 444
- 일수상 방한, ‘과거청산’ 한 목소리, 위안부 법적 배상·한일협정 폐기/96.6.22 1 669 / 466
- <성명서>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에 대한 일정부의 책임이행을 촉구하며/96.6.22 2 669 / 467
- 여연 지은희 대표 방일,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/96.6.27 1 672 / 472



<한국여성단체연합>

-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/95.10.11 1 501 / 81
-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/95.10.19 2 507 / 98
- "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" 법안 통과저지 모색/95.12.13 2 546 / 193
-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 없다 결정/95.12.14 2 547 / 195
-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/95.12.21 2 552 / 205
- 한전 노사에 노조위원장 사퇴 등 촉구 항의 서한/96.2.8 2 580 / 270
- 여성운동상 후보 추천/96.2.10 2 582 / 274
-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일본인 변호사 도츠카씨 선정/96.3.6 1 595 / 302
- <인터뷰> 여성운동상 수상-도츠카 변호사/96.3.8 2 597 / 307
- 지은희 대표 방일,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/96.6.27 1 672 / 472

19. 인권교육

- 불교인권위 인권학교,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려/95.10.24 1 510 / 103
- 인권운동 길찾기 토론회, 청년·학생 연대 필요/96.6.12 2 661 / 451

<기획시리즈>

- '세계의 인권' 연재를 시작하며/96.5.9 2 639 / 403
- 세계인권② 실종/96.5.23 3 649 / 424
- 세계의 인권③ 사형제도/96.6.13 2 662 / 453
- <특별강의> 동양사상과 인권(신영복) ①-인권은 억압으로부터 출발/95.10.19 2 507 / 98
- <특별강의> 동양사상과 인권(신영복) ②-자유와 최고치는 평등/95.10.20 2 508 / 100

20. 인권·사회단체

<AI한국지부>

- 중국인권개선 촉구 성명/95.11.11 2 524 / 138
- '북경여성대회 결의사항 이행' 촉구/96.3.8 2 597 / 307
-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캠페인/96.3.19 1 604 / 320
-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/96.3.20 2 605 / 323
- 포항제철, AI 한국지부 회원에게 탈퇴 종용해/96.3.28 1 611 / 334

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

- 검찰 4.18위중 불기소 결정 반박/95.10.11 1 501 / 81
-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/95.10.13 1 503 / 89
- 5.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, 변호사단체 시국 관련 최초 집단행동/95.10.17 1 505 / 93
- 현재 재판관 기피,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/95.11.29 1 536 / 162
-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, 5.18특별법 의견서 제출/95.12.14 1 548 / 194
- 새집행부 구성, 회장에 최영도변호사/96.6.4 2 656 / 441
- 해고자 복직 촉구 성명/96.6.18 2 665 / 459

<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>

- 김대통령 입장 반박, 국보법 철폐 주장/95.10.18 1 506 / 95
- 노태우씨 항의방문/95.10.25 2 511 / 106
- 서대문경찰서장등 불법 감금 혐의 고소/95.11.1 2 516 / 120
- 철야 농성 돌입, 매주 대규모 집회 계획/95.11.2 1 517 / 121
- 부평경찰서 집회 불허로 고소 예정/95.11.3 1 518 / 124
- 1억 목표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/96.1.30 1 573 / 252
- 공안탄압 중지 촉구/96.2.6 1 578 / 265
- 폭력강제철거 중단, 책임자 엄벌 촉구/96.2.7 1 579 / 267
- 정부 북한 돕기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 전달/96.2.8 1 580 / 269
- 5기 대의원대회,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/96.2.27 1 590 / 289
-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/96.2.29 1 592 / 293
- 전국연합등 사회운동단체, 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 77주년 3·1절 기념식/96.3.5 2 594 / 301
-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하며 미대사관 앞서 매주집회 개최키로/96.3.27 1 610 / 332
- 교육정책 비판하는 성명 발표/96.4.9 2 618 / 355
- 철새 당선자 비난 "민의 저버린 처사"/96.5.22 2 648 / 421
- "쌀 지원 허용하라" 민간 허용 촉구/96.6.1 1 655 / 437
- 전국연합통신 100호, 민족민주정론지로 출발/96.6.1 1 655 / 437
- 악법철폐, 경제민주화 요구하는 6월항쟁 9주기 성명/96.6.11 2 660 / 449
- 정부의 이중적 태도 비난하며 해고자 복직 촉구/96.6.15 1 664 / 456
- "광주와 무관하다"는 전두환씨 발언 항의/96.6.19 1 666 / 460
- 검찰 인권유린 빈번하다며 처벌 촉구/96.6.21 1 668 / 464

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

- 민교협·사교련, 비리 사학 경영 주체 바꿔야/95.10.17 2 505 / 94
- 근로자파견제 철폐 촉구 성명/95.10.24 1 510 / 103
- '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, 민노총·민교협 등 8개 단체/96.2.24 2 589 / 288

<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>

- 김선명씨 환영행사 원천봉쇄 집시법 위반, 내무부장관·경찰청장 고소/95.11.1 1 516 / 119
- 목요집회, 간첩 말만 믿고 구속 가족 증언/95.11.10 1 523 / 135
- 목요집회, 로스 다니엘씨등 3명 0.75평 감옥 체험/95.11.24 2 533 / 157
- <민가협 창립 10돌 기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>/95.12.12 2 545 / 190
-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/96.2.23 2 588 / 286

<불교인권위원회>

- 인권학교,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려/95.10.24 1 510 / 103
- 장기수 송환 논의 제안/95.11.15 1 526 / 141
- 계훈제씨 병원 입원, 치료비 모금/95.11.15 2 526 / 142

- 계훈제씨 병원비 1천1백여만원 전달/95.11.28 2 535 / 161
- 박석률씨 성금 전달/96.1.10 1 559 / 224
- 범민련 구속 목사 돕기 모금운동/96.1.23 2 568 / 243
- 불교계, 군교회 예배 사건으로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/96.2.1 2 575 / 260
- 판문점서 장기수 복송 회담 재 추진/96.2.8 2 580 / 270
-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/96.2.15 2 585 / 280
- 장기수 송환 회담 재 추진/96.3.27 1 610 / 332
- 불교인권상 후보 추천/96.4.24 1 628 / 374
- 북측에 인권기도문 제안, 24일 함께 낭독/96.5.8 2 638 / 401
-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,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/96.5.17 2 645 / 415
- 통일원·안기부 압력에 남북 불교 공동기도 무산/96.5.28 1 651 / 427
- 5회 불교인권상에 김창한 해고노동자 수상/96.6.18 1 665 / 458

<인권운동사랑방/인권하루소식>

- 5백호기념 좌담-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(1)/95.10.11 2·3·4 501 / 82, 83, 84
- 5백호기념 좌담-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(2)/95.10.12 2·3·4 502 / 86, 87, 88
- <인권하루소식> 통신 서비스 시작/95.12.12 3 545 / 191
- <인권하루소식>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 10대뉴스/95.12.27 3·4·5 555 / 212, 213, 214

<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>

- 김종태 열사 묘지 망월동 이장/95.10.14 1 504 / 91
- 이한열 열사 부친 운명/95.10.21 2 509 / 102
- 서울구치소 시위,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,6공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/95.11.23 1 532 / 153
-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·최규하씨 집 앞서/95.12.16 2 549 / 199
- 김세진·이재호씨 10주기 교내 추모식 원천 봉쇄/96.4.30 1 632 / 383
- 김귀정열사 5주기, 열사 10일 합동추모제/96.5.22 2 648 / 421
- 26일 이재호열사 10주기, 추모문집 8월 발간 예정/96.5.25 1 650 / 425

<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>

-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 결과 발표, 해외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심각/95.10.14 2 504 / 92
- 전 검찰총장등 직무유기로 고발,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/95.10.25 2 511 / 106
- 실명제 개정 청원/95.10.31 1 515 / 113
- 「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」 개정 국회 청원/95.11.3 1 518 / 124
- 법률 상담 시작/95.12.12 1 545 / 189
- 부패추방운동 본부 발족, 2천년까지 전개/96.1.10 1 559 / 224
- 부패방지법 토론,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/96.1.25 2 570 / 247
- 전·노씨 재판부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의견서 제출/96.1.26 1 571 / 248
-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, "국민 손으로 부정축재 재산 환수"/96.2.28 1 591 / 291
- 부정부패 신고 전화 '시민의 눈' 개통/96.3.5 1 594 / 300
- 선거 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, 헌법 소원 심판 청구/96.3.12 1 599 / 310

- 맑은사회만들기 본부, 노태우씨 재산 환수 촉구/96.3.14 1 601 / 314
- 총선후보 대상에게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/96.3.20 2 605 / 323
- 참여연대등 8개 시민단체 총선 공약 12개 주요 과제 제안/96.3.22 1 607 / 326
-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재원마련등 추진 계획 없다고 공약 평가/96.3.28 1 611 / 334
- 경인선 대책 마련 촉구하며 서울역앞 항의 시위/96.4.3 3 615 / 347
- '검은 돈'배격 서약에 총선 후보 3백20명 참여/96.4.9 2 618 / 355
- 노령 수당 지급 소송/96.4.13 2 621 / 361
- 사법감시센터에서 판·검사 감시/96.4.19 2 625 / 369
- 장애인정책 재검토 촉구 성명/96.4.20 2 626 / 371
-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 촉구/96.5.3 1 635 / 393
-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서명 작업/96.6.4 2 656 / 443
- 효산콘도 특혜 의혹 양심선언한 현 주사 복직 요구/96.6.7 2 658 / 445
- 법률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'법조인의 인식 변화 절실'/96.6.27 1 672 / 472

<천주교인권위원회>

- 천정련, 명동성당서 시국기도회 촛불 시위/95.10.17 1 505 / 93
-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/95.10.25 1 511 / 105
- 신귀영씨 사건 대법원 원심 파기, "조작간첩 체심 반드시 이룰 것"/95.11.15 1 526 / 141
- 천주교 사제 단식 돌입, 시국 미사 정부 도덕성 질타/95.11.17 1 528 / 145
- 조작간첩대책위, 소식지 배포중/95.12.20 2 551 / 203
- 양심수 특사 제외 비난/95.12.23 2 554 / 209
-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, 예술활동 탄압 중지 촉구/96.2.13 2 583 / 276

<한국교회협의회>

- 5.18특별법제정촉구 특별 기도/95.11.1 1 516 / 119
- 인권센터 출범, 인권침해 진상 규명 등 주력/95.6.8 2 659 / 446

<한국인권단체협의회>

- 인권협 경원대 사태 해결 촉구 방문/96.4.19 1 625 / 368
- 대표 단체로 천주교인권위 선출/96.5.8 2 638 / 400
- 일본 우토로마을 대규모 집회, 인권협등 지지 성명과 대표단 파견/96.5.28 2 651 / 428
- 대표단,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/96.5.31 1 654 / 432
- 시사뉴스 탄압 중단 성명/96.6.4 2 656 / 441

<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> → <미군범죄>

<한국여성단체연합> → <여성>

<기타>

-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, 늦봄 통일상 후보 추천 받아/95.11.18 2 529 / 148
- 진보정치연합, AI 인권공약 채택 요구 적극 홍보/96.3.7 1 596 / 304

- 유권자운동연합, 천리안 선거 자료 서비스/96.3.29 3 612 / 338
- 광주 인권지기 창립, 인권 감시·보장 한문 다짐/96.5.7 2 637 / 398
- 한국사회교육원 아시아사민사회연구모임/96.5.8 2 638 / 400
- 민족회의 통일정보 제공/96.6.8 2 659 / 447
- 통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"go onekr"/96.6.20 1 667 / 462

## 21. 인권일반

-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보호선언-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/95.12.9 2 544 / 188
-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/95.12.12 1 545 / 189
- 제7회 인권영화제 '영화 통한 인권의식 넓히기'/96.6.21 2 668 / 465

### 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/ 푸른영상>

-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, 편집기자재등 압수/96.6.15 1 664 / 456
- 푸른영상 대표 불구속 수사, 혐의는 음비법, 조사는 국보법/96.6.19 1 666 / 460
- <자료>-'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'위반 사건/96.6.19 2 666 / 461
-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 요구, 음비법 폐쇄 대책위 22일 구성/96.6.21 1 668 / 464

## 22. 장애인

-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 결정에 참여 보장, 장애인 2% 공천 요구/95.10.25 2 511 / 106
- 여성장애인들 모임, 스스로 빗장 열기 다짐/95.11.29 1 536 / 162
-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/95.12.2 2 539 / 175
-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, 장애우연구소 발표/96.1.19 2 566 / 239
- 녹색교통운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,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/96.1.20 2 567 / 241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'사람이 그리운 사람들' 사진전 개최/96.3.19 2 604 / 321
- <현장스케치> 장애인사진전 '사람 그리운 사람들'/96.3.22 2 607 / 327
- 장애인 폭행 의경 비적이 군 복무중, 사건 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/96.4.10 1 619 / 356
- 공대협, 장애인 비하 발언한 총선 후보 공천 철폐 요구/96.4.12 2 620 / 359
- 민주노총·장대협 자매결연 맺어,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%수준 요구/96.4.17 2 623 / 365
- 장애인 고용 실태/96.4.17 2 623 / 365
- 장애우연구소, 전국 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/96.4.20 1 626 / 370
- 참여연대 장애인정책 재검토 촉구 성명/96.4.20 2 626 / 371

## 23. 주거·도시빈민

- 철거폭력 또 발생, 무악동 주민 30명 부상/95.10.27 1 513 / 109
- 주거권 쟁취 국민대회 개최/95.11.7 1 520 / 129
- 철거민연합, 노동탄압 연대성명 제안/95.11.9 1 522 / 133
-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, 가락본동 기습 철거/95.11.25 2 534 / 159
- 가락본동 철거민 쌍용본사 항의 방문/95.11.28 1 535 / 160
- 청와대 항의 방문 가던 노점상 1백여명 연행/96.1.6 1 557 / 220

- 암사동에서 강제 철거/96.2.13 1 583 / 275
- 세계주거회의민간위,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/96.2.13 1 583 / 275
-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,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들 주거권 보장 요구/96.5.8 1 638 / 400
- 주택공사 공권력 요청으로 재개발 지역 주민 연행/96.5.9 1 639 / 402

### <세계주거회의>

-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/96.1.18 2 565 / 237
- 세계주거회의 참가신청/96.2.16 2 586 / 282
-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, 주거 최저기준이 마련돼야/96.3.9 1 598 / 308
-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최/96.3.9 2 598 / 309
- 세계주거회의 3차 준비회의서 "NGO도 협상대상"이라고 밝혀/96.4.10 2 619 / 357
- 주거회의 NGO 공동대표 방한, 김덕룡장관 만나 주거회의 홍보 요청/96.5.15 2 643 / 411
- 제2회 세계주거회의 "민간·정부 연대, 지속 가능한 개발 모색"/96.5.22 2 648 / 421
- 주거회의 참가자들 출국전 기자회견/96.5.29 2 652 / 430
- 제2회 세계주거회의서 정부 '주거권' 인정/96.6.11 1 660 / 448
- <세계주거회의의 참관기>-이정운(참여연대)/96.6.22 2 669 / 467

### <용인수지지구/ 신연숙 씨 사망>

- 경찰·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, 철담서 화재나 1명 사망·4명 중상/96.2.6 1 578 / 265
- 용인군 수지면 사망 사건 항의,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/96.2.7 1 579 / 267
- 전국연합, 폭력강제철거 중단하고 책임자 엄벌 촉구/96.2.7 1 579 / 267
- <현장스케치> 고 신연숙씨의 영안실 표정/96.2.7 2 579 / 268
-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담 농성 1백38일/96.2.7 2 579 / 268
-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/96.2.9 2 581 / 272
- 검경,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/96.2.13 1 583 / 275
- 철거민들 경기도지사·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키로/96.2.14 1 584 / 277
- 고 신연숙 비대위 민중탄압 공동항의 제안/96.2.22 1 587 / 283
- 고 신연숙씨 비대위 결의대회 가져/96.2.24 1 589 / 287

## 24. 행형

- 법무부 19명 사형 집행,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난 성명/95.11.3 1 518 / 124
- 엠네스티 긴급 행동, 한국정부에 19명 사형 항의/95.11.4 2 519 / 128
- <특별기고>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-오완호/95.11.7 2 520 / 130
-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, 성동구치소 재소자 치우개선 약속받아/96.1.11 1 560 / 226
-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빛은 인권침해, 미결 재소자 홀겹 옷으로 겨울을/96.1.12 1 561 / 228
- 성동구치소장 10개 요구 사항 개선 약속/96.1.13 2 562 / 231
-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 국고 부담/96.3.8 1 597 / 306

### <고애순 씨 사건>

-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/95.12.14 1 547 / 194

-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/96.2.9 1 581 / 271
- 고애순 씨의 육아일기/96.2.9 1 581 / 271
- 고애순 씨 50여일 수감 중에 단 한차례 진료/96.2.10 1 582 / 273
- 고애순 씨 공대위 구성 합의, 여연·전국연합 사법부 비난 성명/96.2.13 2 583 / 276
- <자료> 고애순 씨 옥중 편지-자나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/96.2.14 2 584 / 278
-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촉구, 고애순씨 대책위구성/96.2.15 1 585 / 279
- <특집> 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(1)/96.2.15 2 585 / 280
- <특집> 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(2)/96.2.16 2 586 / 282
- 생명나눔실천회, 태아 살인 방조 책임져야 한다/96.2.22 2 587 / 284
- 고애순 씨 대책위,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/96.2.24 2 589 / 288
- 고애순 씨 태아 사산, 세계적 항의운동/96.3.30 1 613 / 339
- 광주지법,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돼 채수감 위기 모면/96.4.19 1 625 / 368
- 고애순 씨 인터뷰-재판부 보석 결정은 당연/96.4.19 1 625 / 368
- 고애순 씨 국가상대 손해소송 첫재판/96.5.16 1 644 / 412

## 25. 환경

- 울산시 한국티타늄 공장 증설 허가 물의, 환경단체 등 강경대응 모색/96.2.22 1 587 / 283
- 선명회·환경운동연합 “체르노빌을 돕자”/96.5.4 2 636 / 396
-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요구하는 영흥도 주민 3명 구속/96.5.11 2 641 / 407
-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, 영흥도 주민 무기한 농성/96.6.11 2 660 / 449

### <영광핵발전소>

- 영광 주민들, 핵발전소 감시 나서- 위험시 주민에 통보/95.10.31 1 515 / 113
- 영광 주민들, 핵발전소 5·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/96.3.13 2 600 / 313
- 영광핵발전소 5·6호기 건설 백지화 촉구하는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/96.3.23 1 608 / 328
- 핵발전소 사고 잦아 주민들 계속 투쟁/96.5.23 1 649 / 422

## 26. 기타

-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,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/95.10.11 1 501 / 81
- 서울등 전국 5곳 대규모 국민대회,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/95.10.14 1 504 / 91
- 시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, 프락치 판명 김주광씨 나타나/95.10.24 2 510 / 104
- 전태일 25주기 추모식, 이번주 영화시사회/95.11.7 1 520 / 129
- 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/95.11.8 2 521 / 132
- <현장 스케치>청년 전태일 영화로 부활하다/95.11.14 2 525 / 140
- 아시아 연극인 페스티벌 6개국 참가 열흘간 열려/95.12.19 1 550 / 200
- 신문의 강제투입률 중앙일보 1위/96.4.3 3 615 / 349
- 4월혁명 기념식에서 김종필대표 화환 짓밟혀/96.4.20 2 626 / 372
- 30대 여인 “김대통령 만나게 해 달라”며 분신 중태/96.4.20 2 626 / 372
- 경인선 지연 1차 공판에서 철도청 책임 전면 부인/96.4.26 2 630 / 380

### <인권간행물>

- 인권간행물/95.10.14 2 504 / 92
- 인권간행물/95.10.21 2 509 / 102
- 인권간행물/95.10.28 2 514 / 112
- 인권간행물/95.11.4 2 519 / 128
- 인권간행물/95.11.11 2 524 / 138
- 인권간행물/95.11.18 2 529 / 148
- 인권간행물/95.12.2 3 539 / 176
- 인권간행물/95.12.16 2 549 / 199
- 인권간행물/96.1.13 2 562 / 231
- 인권간행물/96.1.20 2 567 / 241
- 인권간행물/96.1.27 2 572 / 251
- 인권간행물/96.2.3 2 577 / 264
- 인권간행물/96.2.10 2 582 / 274
- 인권간행물/96.2.24 2 589 / 288
- 인권간행물/96.5.11 2 641 / 407
- 인권간행물/96.5.25 2 650 / 426
- 인권간행물/96.6.15 2 664 / 457

### <인권하루소식 매월 총목차>

- 95년 10월분 총목차(496-515호)/95.10.31 2·3 515 / 114, 115
- 95년 11월분 총목차(516-537호)/95.12.1 2·3 538 / 172, 173
- 95년 12월분 총목차(538-555호)/96.1.5 2·3 556 / 218, 219
- 96년 1월분 총목차(556-574호)/96.1.31 2·3 574 / 255, 256
- 96년 2월분 총목차(585-592호)/96.3.2 2·3 593 / 298, 299
- 96년 3월분 총목차(593-613호)/96.3.30 2·3 613 / 340, 341
- 96년 4월분 총목차(614-632호)/96.5.1 2·3 633 / 388, 389
- 96년 5월분 총목차(632-654호)/96.6.1 2·3 655 / 438, 439
- 96년 6월분 총목차(655-674호)/96.6.29 2·3 674 / 477, 478

### <주간인권흐름>

- 주간인권흐름(95년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)/95.10.17 2 505 / 94
- 주간인권흐름(95년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)/95.10.24 2 510 / 104
- 주간인권흐름(95년10월24일부터 10월29일까지)/95.11.1 2 516 / 120
- 주간인권흐름(95년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)/95.11.7 2 520 / 130
- 주간인권흐름(95년11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)/95.11.14 2 525 / 140
- 주간인권흐름(95년11월13일부터 11월19일까지)/95.11.21 2 530 / 150
- 주간인권흐름(95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)/95.11.28 2 535 / 161
- 주간인권흐름(95년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)/95.12.5 2 540 / 178
- 주간인권흐름(95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)/95.12.12 2 545 / 190

· 주간인권호름(95년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)/95.12.19 2 550	/ 201
· 주간인권호름(95년12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)/95.12.27 2 555	/ 211
· 주간인권호름(95년12월25일부터 96년1월7일까지)/96.1.9 2 558	/ 223
· 주간인권호름(96년1월8일부터 1월14일까지)/96.1.16 2 563	/ 233
· 주간인권호름(96년1월15일부터 1월21일까지)/96.1.23 2 568	/ 243
· 주간인권호름(96년1월22일부터 1월28일까지)/96.1.30 2 573	/ 253
· 주간인권호름(96년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)/96.2.6 2 578	/ 266
· 주간인권호름(96년2월5일부터 2월11일까지)/96.2.13 2 583	/ 276
· 주간인권호름(96년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)/96.2.22 2 587	/ 284
· 주간인권호름(96년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)/96.2.27 2 590	/ 290
· 주간인권호름(96년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)/96.3.5 2 594	/ 301
· 주간인권호름(96년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)/96.3.12 2 599	/ 311
· 주간인권호름(96년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)/96.3.19 2 604	/ 321
· 주간인권호름(96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)/96.3.26 2 609	/ 331
· 주간인권호름(96년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)/96.4.2 2 614	/ 346
· 주간인권호름(96년4월1일부터 4월7일까지)/96.4.9 2 618	/ 355
· 주간인권호름(96년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)/96.4.16 2 622	/ 363
· 주간인권호름(96년4월15일부터 4월21일까지)/96.4.23 2 627	/ 373
· 주간인권호름(96년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)/96.4.30 2 632	/ 384
· 주간인권호름(96년4월29일부터 5월5일까지)/96.5.7 2 637	/ 398
· 주간인권호름(96년5월6일부터 5월12일까지)/96.5.14 2 642	/ 409
· 주간인권호름(96년5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)/96.5.21 2 647	/ 419
· 주간인권호름(96년5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)/96.5.28 2 651	/ 428
· 주간인권호름(96년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)/96.6.4 2 656	/ 441
· 주간인권호름(96년6월3일부터 6월9일까지)/96.6.11 2 660	/ 449
· 주간인권호름(96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)/96.6.18 2 665	/ 459
· 주간인권호름(96년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)/96.6.25 2 670	/ 469

## <인권하루소식> 합본 VI

펴낸날 · 96년 9월

펴낸이 · 서준식

펴낸곳 · 인권을통사랑방

주소 140-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-12 조양빌딩 3층  
대표전화 715-9185 팩스 715-9185

통신 ID rights(천리안, 하이텔) 인권사랑(나우누리)

인터넷 접속주소 <http://www.interpia.net/~rights/>

값 1만5천원